

# 中共의 陶行知教育思想批判(1951~53)\*

李 炳 柱

I. 머 리 말

II. 陶行知的 生涯와 教育活動

III. 陶行知的 教育思想

IV. 陶行知教育思想批判

V. 맺 음 말

## I. 머 리 말

陶行知에 대해서는 蔡元培나 胡適과는 달리 우리 한국이나 외국에서도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陶는 중국현대사의 前半(1920년대~1940년대)<sup>1)</sup> 격동기에 있어서 혁신적 교육개혁가,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농촌·대중교육운동가, 그리고 진보적 민주·항일애국투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당시 중국사회에 있어서 평소 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愛護와 높은 평가는 그의 갑작스런 죽음이 불러 일으킨 광범위한 반향에 의하여 證明되었다. 1946년 7월 하순 上海에서의 陶의 사망의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내 각계 각층의 인사와 단체들은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각처로부터 故人을 哀悼·追慕하는 전보와 글이 2,000 여건 이상이나 到來하였던 것이다.<sup>2)</sup> 그런데 당시

\* 본 논문은 1984년도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研究費支援에 의한 연구결과로서 同財團에 감사하는 바이다.

1) 여기서 필자가 중국현대사의 전반기를 1910년대~40년대로 기술한 것은 중국현대사를 크게 2분하여 1949년 10월 중공정권수립 이후를 후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 陶行知先生紀念委員會編, 「陶行知先生紀念集」(1947, 上海) 참조(이하 紀念集).

발표된 많은 추모문 중에서도 중공지도자들의 것은 한결같이 陶에 대하여 극진한 찬사를 다했다는데 특별한 바가 있다. 예컨대, 毛澤東은 陶行知를 가르켜 “人民의 偉大한 教師”라고 했는가 하면<sup>3)</sup> 周恩來는 陶行知的 죽음은 “중국인민에게 補償될 수 없는 손실”이라고<sup>4)</sup> 하였다. 또한 郭沫若은 獻詩를 통해 “2,000 년전에는 孔仲尼(공자—필자)요 2,000 년후에는 陶行知”이며 “당신은 孫中山死後에 또 하나의 孫中山”이라고 극찬하였다.<sup>5)</sup> 뿐만 아니라 中共은 선전부장 陸定一로 하여금 中共中央委員會를 대표하여 陶에 대한 公式 추모문을 발표케 하였다. 陸은 그 추모문에서,

“도행지선생의 죽음은……중국의 독립평화, 민주운동을 위하여 중대한 손실이며 중국인민해방사업의 중대한 손실이다.……(중략)……우리들의 解放區의 교육계는 모택동 동지와 도행지선생의 新民主主義的 教育원리를 연구함과 아울러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sup>6)</sup>(傍點은 필자)

고 하였다. 게다가 당시 陝甘寧邊區政府主席 林伯渠는 邊區의 교육자들에게 陶의 정신을 학습할 것과 그의 逝去를 기념할 것을 공식으로 명하였다.<sup>7)</sup>

중공도 인정했듯이 도행지는 평생 공산당원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지도자들이 陶의 죽음을 이처럼 애도하고 최대의 찬사를 쓰면서 舉黨의으로 추모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중공지도자들은 위의 陸定一의 추모문에서 볼수 있듯이 후에 상술되는 바 도행지의 평생 농민을 위시한 광범위한 民衆을 위한 교육운동과 사상이 자기들의 教育路線과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紀念集은 題詞, 傳略, 國際友聲, 輿論一般, 陶行知思想路線, 陶派詩評, 遺愛在人間, 遺愛在曉莊, 遺愛在山海, 遺愛在育在, 遺愛在工友, 遺愛在榮軍, 遺愛在兒童, 輓詩, 祭文, 跳出家庭圈外, 國內外追悼情形, 弔信慰問, 先生遺著, 大事年表, 그리고 後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生活教育社編, 「陶行知先生四週年祭」(北京, 1950) (이하 四週年祭로 약칭)에 再錄된 毛澤東의 題字.
- 4) 周恩來, “對進步朋友應多加關照,” 「周恩來選集」(北京, 1980), 上卷, p. 238.
- 5) 鄧初民, “略論陶行知主義”, 四週年祭, *op. cit.*, p. 53.
- 6) 陸定一, “悼人民教育家陶行知先生,” *ibid.*, p. 5.
- 7) 林伯渠, “向陶行知先生學習,” 「延安解放報」(1946. 8. 12).

는 것이다.<sup>8)</sup> 둘째로, 중공은 日帝의 만주침략 이래 도행지의 抗日救國活動을 그들의 ‘內戰反對·一致抗日’ 정책에 대한 호응 내지는 연계활동으로 파악하여 陶를 그들에게 동조하는 ‘친밀한 戰友’로 보았다. 그리고 그의 죽음도 국민당 特務의 암살위협속에서의 긴장과 과로로 인한 間接殺害라고 주장, 陶의 죽음을 國共內戰初 兩黨關係가 극히 악화된 상황아래서 국민정부 비관을 위한 또 하나의 好機로 이용하려 했던 것 같다.<sup>9)</sup> 여하튼 중공당국의 도행지를 존중하는 위와 같은 입장은 중공내전에서 중공이 승리하여 정권을 수립한 직후까지도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 7월 陶의 逝去 四週期를 맞아 북경에서 그의 제자들과 知友들에 의하여 도행지에 대한 추모집이 출판되었을 때 毛澤東, 朱德, 宋慶齡 등의 題字와 陸定一, 李維漢, 徐特立, 胡喬木 등 중공의 고위간부들의 追慕文이 그대로 실렸다.<sup>10)</sup>

그러나 1951년 가을부터 중공의 종래 도행지에 대한 입장은 변하였다. 같은 해 5월에 시작된 武訓批判運動에 이어 중공정부는 교육제에 대하여 生時에 武訓을 칭송한 바 있는 도행지의 교육사상도 재검토할 것을 중용한 것이다. 즉, 같은 해 9월 教育部副部長 錢俊瑞는 武訓문제와 함께 그를 칭송한 陶의 문제를 포함한 논문을 「人民教育」에 실었다. 그리고 그것을 서곡으로 1953년 가을까지 陶의 제자와 知己를 포함한 많은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陶行知思想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행하여졌다.

위와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이 논문의 목적은 1951~53년에 걸쳐 행해진 陶行知教育思想批判의 배경과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중공정권초기의 교육

8) 중공의 대중교육가 徐特立은 陶行知를 “중국의 혁명적 교육가”이며 동시에 唯物主義者로 규정하면서 그의 生活에 바탕을 둔 교육사상을 중공의 整風運動이후 邊區에서 토착동 지도하에 행해진 교육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공의 유명한 黨史家 胡喬木은 “해방구에 있어서 우리들의 교육방침이 陶先生의 것과 서로 符合한다”고 하였다. 見 徐特立, “陶行知的學說,” 四週祭, p. 9, 胡喬木, “掌什麼來紀念陶先生,” *ibid.*, p. 21.

9) 陸定一, *op. cit.* pp. 6~7.; 李維漢, “對人民忘了自己” *ibid.*, p. 20.

10) 四週祭 前面 各題字와 앞에 든 추도문 참조.

및 사상정책의 일단을 밝히려는데 있다. 그러한 작업을 위한 자료로는 陶思想批判을 주도한 중공정부 교육부의 기관지, 「人民教育」에 실린 陶에 대한 비판논문 약 15 편과 陶에 대한 비판을 촉발한 武訓批判關係資料,<sup>11)</sup> 그리고 陶行知의 생애와 사상에 관련된 諸 資料를 함께 이용하려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의 전개는 이 머리말에 이어 陶行知의 생애의 概略과 사상의 주요내용, 陶批判의 배경으로서의 중공초기의 사상정책과 武訓批判運動, 陶行知思想批判의 전개양상과 내용, 그리고 결론으로 陶思想批判의 의미를 살펴보는 順으로 하려 한다.

## II. 陶行知의 生涯와 教育活動<sup>12)</sup>

도행지는 1891년에 나서 1946년에 죽었다. 그의 55년간 짧은 생애기간은 중국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移行하는 혼란과 격동의 시대였다.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해묵은 전통적 전제왕조를 청산하고 중국실정에 맞는 새로운 통일·독립된 근대적 정치체제의 확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辛亥革命(1911), 國民革命(1924~28), 그리고 中共革命(1949)의 3大革命과 그에 부수된 수많은 정치적 사건이 繼起하였고, 대외적으로는 21個條要求(1915)이래 노골화되면서 집요히 확대되어간 日帝의 침략으로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 시기는 從的 位階秩序

11) 錢俊瑞, “從討論武訓問題我們學到些什麼,” 「人民教育」3卷5號(1951.9), pp. 7~13.

12) 陶行知의 一生에 관한 資料로는 「陶行知先生紀念集」(陶行知先生紀念委員會, 上海, 1947)(이후부터 紀念集); 「陶行知先生四週年祭」(生活教育社, 北京, 1950)와 “Tao Hsing-chih,” *Bibliographical Dictionary of Republic of China*, ed. by Howard C. Boorman, (Columbia Univ. Press, 1970, Vol. III, pp. 243~248); 傳記著書로서는 麥青, 「陶行知」(上海, 1949); 戴白韜, 「陶行知的生年及學說」(北京, 三聯書店, 1949); 齊藤秋男, 「陶行知」(東京, 刀江書院, 1951), 同著者, 「評傳 陶行知—政治的 抒情京人の生涯」(東京, 勁草書房, 1968) 등이 있다.

에 바탕한 지배윤리와 차별적 社會職能觀의 전통적 사회제도와 가치관이 水平的 相互關係와 개인주의에 바탕한 새로운 民主的 사회제도와 근대적 가치관으로 變換·代置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격변기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평생을 棄私取共精神으로 살아간 도행지의 생애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도행지의 일생이 크게 교육개혁가에서 시작하여 대중교육가, 농촌교육·개혁운동가, 그리고 진보적 민주·항일투쟁가로 이어진 것은 그가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삶을 살아간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陶의 삶은 또한 그의 獨創的 교육사상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13)</sup> 따라서 여기서는 陶의 생애를 그의 사상적 발전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려 한다.

## 1. 가정과 교육

도행지는 1891년 10월 18일(음력 9월 16일) 安徽省 歙縣(섬현) 王墩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소규모 자작농 陶任潮의 2男 2女中 2男으로 태어났다. 그의 生時 이름은 文潛이었으며 14세까지 부친슬하와 서당에서 漢文을 배웠다. 그 후 15세 되던 1906년 陶는 歙縣城內 기독교계통의 중학 崇一學堂에 입학하여 4년과정을 월반과 우등으로 3년에 마치고 杭州에 역시 기독교 계통의 의과대학 廣濟學堂에 進學했다가 洗禮問題로 인해 반년만에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듬해 19세로 南京에 私學名門 金陵大學 文學系에 입학하였는데 陶의 장차 대중교육 개혁가와 애국운동가로서의 자질이 나타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金陵大學이었다. 신해혁명 1년전에 金

13) 陶行知的 일생은 그의 弟子 方與巖에 의해 陶의 教育運動發展段階를 중심으로 鄉村教育運動, 普及教育運動, 國難教育運動, 戰時教育運動, 全面教育運動, 民主教育運動의 6段階로 정리·定式化되고 다른 記述도 대략 그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이해의 편의상 本文에서와 같이 5단계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한다. 方與巖 編, 「陶行知教育論文選集」(이후 論文選集)(上海, 香港, 星加坡, 生活書店, 1948) “代序”(教人民起來做主人), p. 4; 江蘇省陶行知教育思想研究會·南京曉莊師範陶行知研究室 合編, 「陶行知文集」(이후 文集)(江蘇省人民出版社, 1981) 參照.

陵에서 학생생활을 시작한 그는 演說部를 조직, 學校內外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선전하고 전람회를 열어 혁명운동 지원을 위한 救國募金活動을 주동하였으며 學生誌 「金陵光」을 창간·편집하는 등 활발한 학생활동을 벌였다. 그는 또한 대학재학중 王陽明(1471~1529)의 傳習錄을 탐독, 王의 知行合一說에 심취하였다. 그 결과 그는 스스로 이름을 知行으로 바꾸었는데, 이 이름은 1934년 다시 行知로 改名할 때까지 쓰여졌다.<sup>14)</sup> 여하튼 陶는 1913년 4년의 과정을 1년 빨리, 그것도 수석으로 金陵大學을 졸업하였다.

金陵大學을 졸업한 陶는 관리가 되려고 하였으며 그것을 위해 도미유학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914년 겨울 그는 친척으로부터 借金하여 미국유학길에 올랐다. 미국에 당도한 그는 처음에 작정한 대로 일리노이大學校 정치과 대학원생으로 등록하여 市政(city administration)을 전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콜럼비아大學 출신 코후만(Lotus D. Coffman)교수의 교육행정학을 수강하던 중 존 듀이(John Dewey)의 교육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이듬해 가을 듀이가 재직하고 있는 콜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전학하여 교육학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서 듀이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의<sup>15)</sup> 愛弟子가 되었으며 1917년 봄 교육학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

## 2. 新教育의 제창과 平民教育活動

1917년 가을 귀국한 陶는 南京高等師範學校 교수로 초빙되었으며 머지 않아 教育長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그가 배워 온 듀이의 실용주의적 교육철학에 따라 教授法과 교과내용의 개편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학교외에서도 蔡元培, 蔣夢麟, 胡適 등 저명한 교육자들과 함께 중국의 교육개혁을

14) 前掲, 「陶行知文集」(이후 文集) 年表, p. 883 참조; 戴白韜는 그의 前掲書에서 1930년경이라 기록하고 있다(p. 25).

15) 당시 콜럼비아大學의 세계적 교육학자로는 듀이 외에 Paul Monroe, William Kilpatrick 교수 등이 있었다.

제창하였다. 그는 「新教育」, 「新教育評論」과 같은 교육잡지에 논문기고물 통해 듀이 등 미국학자들의 새로운 교육사상과 이론을 소개했으며,<sup>16)</sup> 앞에서 든 학자들과 함께 1921년 겨울 中華教育改進社<sup>17)</sup>를 조직하고 總幹事로 선출되어 改進社의 실질적 운영책임을 졌는데, 그러한 활동은 모두 당시 중국의 교육개혁을 위한 그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陶는 거의 같은 시기에 成人을 위한 識字運動(문맹퇴치운동)에도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여름방학동안 학생들과 南京高師 주변의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적이고 실험적인 식자운동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1923년 8월 또 다른 저명한 문맹퇴치운동가 晏陽初(James Yen)와 함께 北京에서 中華平民教育促進會를 설립함으로써 그의 주된 사업으로 바뀌었다.<sup>18)</sup> 그는 당시 平民教育運動이라고 부른 이 문맹퇴치운동에 전념키 위하여 「東南大學으로 改名·昇格된 高師의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10월부터 促進會를 중심으로 平民教育運動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는 朱經農과 협력하여 직접 「平民千字課」라는 文字讀本을 만들었으며 전국의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夜學을 세우고 집, 상점, 공장, 여관 등 가능한 곳에는 모두 “平民讀書處”를 개설함으로써 인력 거꾼, 행상, 노동자, 荷夫 등 下層계급의 문맹자들이 쉽게 기초적인 문자나 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19)</sup> 그 결과 평민교육운동은 시작한지 9개월만에 20개 省과 수많은 도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陶의 평민교육운동이 단순한 成人教育의 차원을 넘어 社會改革과 政治改革的 성격을 띠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1923년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識字運動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16) 文集, pp. 1~58 참조.

17) 中華教育改進社는 教育部長(문교장관)을 비롯하여 국내 유력한 교육자의 대부분을 회원으로 하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교육단체였다. 그 창설에 대하여는 「新教育」4기 3卷(1922년 3월), pp. 529~536 참조.

18) 陶行知, 「知行書信」(上海, 1929), pp. 28~29.

19) 同上書, pp. 14~16, p. 25; 陶行知, “平民讀書之試驗,” 文集, pp. 67~69 (原載 1923년 12월 中華教育改進社第二周年紀念會刊).

노력의 하나라고 한 바가 있다.<sup>20)</sup> 또 다른 기회에 그는 같은 운동을 “국제급간에 장벽을 깨뜨려 자유롭고 개방적 사회를 만드는 기초”라고 하였다.<sup>21)</sup> 또한 당시에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의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통일을 당장 어렵지만 교육은 통일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여 대중교육의 신속한 보급이 軍閥政治를 극복하고 통일·민주정치의 확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믿었던 것이다.<sup>22)</sup>

뿐만 아니라 문맹퇴치를 위하여 수많은 도시를 여행하고 대중들과 접촉하는 동안에 陶는 진정한 대중운동을 위하여서는 그 자신이 완전히 대중과 同一化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우선 그의 옷차림이 대중과 달라 그들과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의 ‘지식인의 복장’을 벗어 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조끼와 바지를 사서 입고 빵덕모자를 구하여 썼다. 陶는 그후 餘生을 한결같이 그러한 옷차림으로 보냈다.<sup>23)</sup>

### 3. 農村教育運動

#### (1) 曉莊學校와 生活教育實驗

선교사와 같은 열성에도 불구하고 陶는 몇 년 안가서 주로 도시와 주변 지역 중심의 識字運動에 한계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대중교육운동과정에서 정말로 救國啓蒙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민중을 소수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전인구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대중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또한 종래의 학교교육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도시생활과 상급학교진학 爲主로 되어있어 봉사와 개선이 시급한 농촌을 도울 수 있는 人材를 양성할 수 없으며 外國直輸入의 교육방식으로는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중국토양에 맞는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

20) 上揭 知行書信, p. 42.

21) 知行書信, p. 56.

22) 麥青, 「陶行知」, p. 18; 張健, “重新認識陶行知先生的生平和事業,” 「人民教育」4卷1期(1951. 11), p. 31.

23) “創造一個四通八達的社會—給文漢的信,” 「知行書信」, p. 56; 文集, pp. 64~65.

작하였다.<sup>24)</sup> 그러한 작성을 배경으로 陶가 새로이 찾은 사업의 出口가 鄉村教育運動이었으며, 그것은 농촌학교 특히 농촌사범학교를 중심으로 농촌생활을 개선하고 그것을 중국부흥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었다.<sup>25)</sup> 陶의 이와 같은 농촌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鄉村社會改造構想的의 실천적 첫발이 1927년 3월 남경 교외에서 개설된 曉莊師範學校였다.<sup>26)</sup>

효장학교(原名은 曉莊試驗鄉村師範學校)는 南京의 北方外郭 和平門으로 부터 5리 떨어진 小莊이라는 작은 村에서 陶와 教育改進社의 同人 趙叔愚, 喬啓明 등<sup>27)</sup> 뜻있는 젊은 학자들이 단 13명의 학생과 함께 교사와 운동장도 없이 한 농가의 앞마당을 빌려 천막 하나, 몇 개의 의자와 책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一面工夫, 一面建設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1929년 末에는 비록 흙벽과 풀잎지붕의 건물이지만 하나 曉莊學院(학교본부와 사범과), 7개 소학교와 유치원, 1개 중학교, 강당, 도서관, 음악실, 식물연구실 등 10數棟의 건물을 갖고 職員과 학생의 수가 모두 3,000여명에 이르고, 학교주위 약 20km 안에 240여개의 村落을 상대하여 움직이는 교육과 농촌개혁을 동시에 실험하는 단초로 발전하였다.<sup>28)</sup>

그러나 효장학교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 목적과 운영, 그리고 교육 방식의 색다름에 있었다. 학교의 교육목표를 “鄉村兒童과 民衆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導師의 養成”으로 정하고, “本校卒業生은 한편으로 아동을

24) 拙稿, “陶行知博士와 中共의 教育理念,” 「中國問題」(漢陽大, 中國問題研究所) 1卷 1號(1975. 12), p. 97; “陶行知先生之意見” 邵爽秋 篇, 鄉村教育之理論與實際(上海, 1934), 鄉村教育類, pp. 4~5.

25) 陶行知, “中國教育改進社改造中國鄉村改造宣言書,” 文集, p. 142(原載「新教育評論」, 3卷 1期(1926. 12)); 同著者, “中國鄉村教育之根本改造,” 同上書, p. 155; 「知行書信」, pp. 154~156.

26) 曉莊學校에 대한 一次의 記錄으로는 李楚材 著, 「破曉」(曉莊叢書之一)(上海, 1932); 方與巖編, 「曉莊之一頁」(上海, 1934), 同編者, 「曉莊之一年計劃」(上海, 1933) 등이 있다.

27) 趙叔愚는 1920年代 中國教育界에서 教育計劃과 鄉村教育에 관한 유능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1930年代初에 夭折했고, 喬啓明은 저명한 農村社會學者이며 후에 金陵大學教授를 역임함.

28) 孔雪雄, 「中國今日之農村運動」(南京, 1934), pp. 282~287.

敎導하고 良好한 향촌학교를 운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民衆을 補導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학교를 鄉村社會改造에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을 원한다”고 하였다.<sup>29)</sup>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 달할 수 있기 위한 교육기준으로 ① 農民的 身手的 養成, ② 科學的 頭腦의 養成, ③ 藝術家의 興趣의 養成, ④ 社會改造家的 精神과 熱心의 養成을 설정하였다.<sup>30)</sup>

실체 학교의 운영과 학생의 교육·훈련에도 거의 극단적인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원칙과 정신교육, 실습위주의 학교교육, 육체노동의三者를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陶行知校長 이하 全敎師와 학생이 한 캠퍼스 안에 기거하며 학교의 사무와 교육계획에서부터 취사와 청소에 이르기까지 指導員(敎師)의 인도하에 학생들이 처리케 하였으며, 교육훈련도 特定한 커리큘럼이나 교과서가 없이 교장과 교사들의 講話, 자유토론, 학생개 개인의 전공에 따른 개인지도, 자습, 각종의 노동, 그리고 對農民奉仕가 주요내용이었다. 또한 정신교육면에 있어서는 민족주의(反帝國主義), 민주와 평등주의(反軍閥, 劣紳, 土豪), 自力更生, 노동의 신성성, 協同精神을 강조하였다.<sup>31)</sup>

이와같은 효장학교의 색다른 교육방법은 후술하는 바 “生活敎育”사상에 근거한 것이거니와 점차 유명해져서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參觀團體와 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중에는 당시 정치·군사의 실권자 蔣介石夫妻도 끼어 있었으며,<sup>32)</sup> 많은 농촌사범학교가 曉莊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舊敎育은 물론 당시 官營敎育과도 相馳되는 효장학교의 운영 및 교육방법과 反軍閥的·反帝國主義的 입장, 그리고 특히 陶校長과 反蔣軍閥 馮玉祥과의 친밀한 관계는 효장학교를 反政府集團으로 간주케 하여 정부의 감시를 받게 하였으며, 1930년 봄 南京 下關에 있는 「和記」工場 노동자들의 反帝罷業에 대한 曉莊學生들의 同情示威를 구실로 결국 같은 해

29) 梁漱冥, “他山之石,” 前掲 曉莊之一頁, p. 215.

30) 同上書, p. 251.

31) 좀더 상세한 生活모습에 대해서는 前掲 拙稿, pp. 99~100 參照.

32) 戴白韜, 前掲書, pp. 35~36.

4월 정부에 의해 曉莊은 폐쇄되고 陶行知는 被逮를 피해 1930년 겨울부터 31년 봄까지 日本으로 망명을 하였다.<sup>33)</sup>

(2) 山海工學團實驗<sup>34)</sup>

1931년 봄에 귀국한 陶는 上海에 匿居하면서 민족자본가 史量才의 후원하에 “自然學院”을 창립하고 科學下嫁(科學의 通俗化)운동을 제창하면서 아동과학총서 100여종을 刊行하였다.<sup>35)</sup> 또한 史氏가 경영하는 「申報」 “自由談”欄에 여러가지 筆名으로 時局隨想을 기고하면서 抗日政論을 펴고 教育小説 「古廟敲鐘錄」<sup>36)</sup>을 연재하여 자신의 교육관을 피력하였는데, 이 古廟敲鐘錄은 그가 1932년 10월 上海郊外 寶山縣 孟家大橋에서 연 山海工學團을 통하여 實踐試驗되었다.

陶가 “Labor-science Union”이라고 부른 工學團은 교육과 생산을 결합시킨 그의 第二의 농촌개혁실험으로써 “工場, 學校, 社會를 하나로 만들어 鄉村을 개조하고 生活力을 풍부하게 하는 細胞”라고 표현했다. 이 工學團운동은 처음에 20여명의 小學生으로 된 兒童工學團으로 시작되었으나 1년 후에는 9個所에 아동공학단이 조직되어 단원이 300여명이 되었고 成人으로된 養魚工學團, 棉花工學團, 織布工學團, 婦女工學團이 결성되어 농민생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자 隣近村落으로 급속히 擴大되어 갔다. 특히 兒童工學團에서 教師難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小先生制”(학생상호간의 교육과 小學生의 지식을 識字운동에 동원하는 제도)는 짧은 시일내

33) 同上書, pp. 36~40; “名地鄉村運動消息” 「村治(月刊)」(梁漱溟主編), 1期 2號(1930. 5), pp. 1~2.

34) 鄉村工學團實驗에 대한 계획에 관한 자료로는 陶行知, “鄉村工學團試驗初步計劃說明書,” 前掲 教育論文選輯, pp. 197~201; “山海與蕪場之實驗”文集, pp. 395~396; 寶山縣試辦鄉村兒童自動工學團組織大綱草案, 文集, pp. 404~410 참조.

35) 戴白韜, 上掲書, pp. 55~57.

36) 古廟敲鐘錄은 古廟에 사는 鐘兒라고 불리우는 남자가 村人과 더불어 古寺를 學校로 改造하고 朱先生이라는 교사를 초빙하여 教育和 중국사회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문답식으로 하는 것을 통하여 陶의 生活教育哲學을 개진한 것이다. 古廟敲鐘錄(節錄), 文集, pp. 344~360.

에 上海주변 諸縣에 퍼짐은 물론 1945년까지는 全國 23省市에서 채택되는 유력한 교육보급제도가 되었다.<sup>37)</sup> 그러나 후술하는 바 1935년 이래 日帝의 華北侵略意圖가 노골화되고 1936년 7월 陶가 全國各界救國聯合會의 抗日民間使節로 해외여행을 떠나자 工學團운동도 停頓에 빠지게 되었다.

#### 4. 國難教育和 戰時教育運動

日帝가 만주를 점령한 후 1935년 華北에 대한 침략기도를 노골화하자 12월 9일 북경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대대적인 抗日請願示威와 그에 호응한 전국적인 抗日運動이 일어났다. 그리고 12월중순부터 1936년 5월까지 중국 각지 각지에서 救國會가 조직되고 6월에는 全國各界救國聯合會(全救聯)가 결성되었다. 이와 같은 抗日運動의 新局面을 맞아 陶行知는 1935년 12월 27일에 조직된 上海文化界救國會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全救聯에서도 沈鈞儒, 鄒韜奮 등과 함께 有力한 지도자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抗日運動의 前面에 나섰다.<sup>38)</sup> 그는 1936년 7월부터 1938년 9월까지 2年餘間 全救聯의 國民外交使節로 南洋各地와 英, 佛, 美 등 28個國을 巡訪하여 華僑들에게 抗日意識을 고취시키고 救國獻金을 각출하며 全世界에 日帝의 侵略性을 고발하였다.<sup>39)</sup>

다른 한편 陶는 1936년 2월에는 國難教育社를 창립하고 國難教育方案을 초안·발표하여 國난교육을 제창했는데, 그 主旨는 “行動에 있어서 國難解決의 眞知識을 取得하며, 그것을 즉시 大衆에게 전달하여 國難을 해결하는 力量을 發生케 한다”는 것이었으며 奴隸化教育和 買辦教育에 反對하며 매국노와 漢奸, 그리고 日本帝國主義打倒를 선언하였다.<sup>40)</sup>

37) 潘一塵, 「小先生制」(上海, 1946), pp. 45~46, 61; 陶行知, “小先生與民衆教育,” 文集, pp. 417~421; 余之介, “偉大的人民教育家陶行知—爲紀念陶氏逝世三周年而作—,” 四周年祭, pp. 127~128; 戴白韜, pp. 82~86.

38) 戴白韜, pp. 96~97.

39) 同上書, pp. 97~108; 陶行知, “出訪二十八國日誌,” 文集, pp. 585~613, 前揭 齊藤, 「評傳 陶行知」 pp. 143~179.

40) 戴白韜, p. 92; 前揭 余之介 論文, pp. 128~129; 陶行知, “答復庶謙先生,” 文集, pp. 521~524; 同著者, “中國大衆教育問題,” 文集, pp. 534~552.

또한 1938년 9월 陶의 귀국시는 이미 中日戰爭이 발발하여 武漢이 일본군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와같은 狀況하에서 陶의 國難教育運動은 抗戰에 직접 기여하는 戰時教育運動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7·7 事變”이래 이미 戰時教育服務團을 조직하여 교육을 통한 抗戰運動을 펴온 그의 國難教育社 동지들과 1938년 9월 桂林(廣西省)에서 中國戰時教育協會를 창립하고 戰時教育方案을 기초함으로써 전시교육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의 전시 교육운동은 기본적으로 生活教育原理에 기초한 것이나 民族主義的 抗戰意識教育과 민중교육을 통한 民衆의 抗戰動員을 主眼點으로 한 것이었다.<sup>41)</sup>

戰時教育과 더불어 陶는 수 많은 戰爭孤兒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중 材能있는 아동들의 특수교육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9년 7월 國民黨 賑恤委員會, 美國援華會, 重慶지구 民族資本家の 後援下에 重慶郊外 鳳凰山기슭에 세워진 것이 育才學校였다. 이 육재학교는 전쟁고아중 재능있는 아동을 선발하여 장차 국가·사회 각 방면에서 이바지할 “天才幼苗”를 배양코자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음악, 연극, 미술, 무용, 문학, 자연, 사회의 7개 특수과와 1개 보통과로 나뉘고 ‘因材施教’의 원칙에 따라 당시 重慶에서 유명한 專問教師의 지도아래 個別材能教育과 함께 集團教育이 행해졌다. 육재학교에 있어서의 陶의 교육목표는 ‘文化爲公·天下爲公’이었으며, 教師任用과 教育資金出處에 있어서 左右를 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육재학교 교사중에는 적지않은 左翼系 文化人이 있었으며, 1941년 1월 新四軍事件이후 자금사정이 곤란하게 된 이후로는 馮玉祥과 中共系 資金로 受容되었다. 그것은 陶의 종래부터의 無黨無派主義와 당시 변화를 겪고 있던 그의 정치적 성향때문이었다. 그 결과 육재학교는 국민정부와 종종 마찰을 빚었으며, 1946년 2월에는 育才學校師生들이 重慶의 較場口集會에서 국민당기관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함으로써 정부와 최악의 관계에 들어가고 그 정상적 운영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되

41) 余之介, pp. 129~130.

었다.<sup>42)</sup>

抗戰期間 중 陶는 위와 같은 교육활동외에 沈鈞儒등 救國連合會 간부들과 더불어 國民參政會의 參政員으로 피선되어 民間身分으로 정치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자인 그의 관심은 물론 정치권력이 아니라 국·공 양자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抗戰力量의 提高와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一·二次 國民參政會에서 교육보급강화, 志願兵制實施, 青年思想解放 등을 통한 抗戰建國力量增加 등의 몇가지 제안을 하는 한편 1945年 봄에는 중립적 지식인이 중심이 된 第三黨인 民主同盟建立에 참가하여 中央常務委員겸 教育委員會主任으로 피선되었다. 또한 그는 同黨의 기관지의 하나인 「民主星期刊」을 主編·간행하여 政治와 教育의 민주화를 역설하였다.<sup>43)</sup>

### 5. 終戰과 民主教育運動

1945년 8월 15일 中日戰爭의 終結後 중국이 당면한 가장 時急한 문제는 國共內戰의 방지와 民主政府의 再建이었다. 이러한 국가적 요청하에서 陶는 戰時抗戰教育에서 民主教育運動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우선 45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매주 토요일 저녁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民主講座”를 열어 국내 당면문제와 민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陶가 제창하는 民主教育은 “人民으로 하여금 自己의 主人임과 동시에 國家의 주인을 만들고 ‘黨化教育’을 반대하며 파시스트細菌을 숙청하여 진정한 민주를 이룩하는 것”이었다.<sup>44)</sup>

그와 같은 “민주강좌”는 또한 발전하여 정규야간대학 형식을 갖춘 “社

42) 陶行知, “育材學校創辦旨趣,” 文集, pp. 664~667; “育材學校教育綱要,” 文集, pp. 668~676; “育才二周歲前夜,” 文集, pp. 705~715; 戲白韜, pp. 110~125; 前掲 齊藤, 評傳 陶行知, pp. 181~215.

43) 沈鈞儒, “一切着眼於救國”, 四周年祭, pp. 27~28.

44) 齊藤, 「評傳 陶行知」, pp. 218~219; 余之介, p. 131; 陶行知, “實施民主教育的提綱,” 文集, pp. 781~788; “民主教育,” 文集, pp. 792~793; “民主教育之普及”, 文集, pp. 794~796.

會大學”의 開設로 이어졌다. 校長에 道衡지, 副校長을 李公樸으로 하여 1946년 1월 10일 重慶市內 管家巷 一隅에서 개교식을 가진 이 학교는 政經系, 文學系, 新聞系, 教育系, 民間藝術系의 5個學科로 편성되고 학과담당 교수들은 民主同盟의 회원이 중심이 된 저명한 학자와 지식인이었다. 대부분의 직업청년인 학생들은 敎員, 工員, 店員 등 출신이 다양했으며 개교한지 2개월 내에 그 수가 4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학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政治民主를 전제로 하면서 ‘民德, 親民, 人民之幸福’을 교육목표로 하는 社會大學은 국민정부당국의 경계하는 바가 되고 급기야 1946년 3월 하순 폐쇄조치되고야 말았다.<sup>45)</sup>

이에 陶는 4월초순 重慶을 떠나 上海로 갔는데, 그것은 工學團, 育材學校, 社會大學 등의 再建과 民主同盟幹部의 한 사람으로서 和平運動에 적극 참여키 위한 것이었다. 국민당이 政治協商會議決議의 파기를 성명한 당시는 여러 곳에서 國共軍隊가 대치, 충돌이 빈발함으로써 全面內戰발발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上海에서의 陶의 생활은 앞의 교육기관 再開문제와 정치적 언론 및 집회로 매우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는 여러 群衆集會에서 內戰停止와 民主和平을 호소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小孩와 人民을 교사로 삼고”, “4억 5천만을 주인으로 만들고 百工百業의 人材를 기르는” 新教育의 방향과 敎師들의 민주교육을 위한 「再教育」을 주장하였다.<sup>46)</sup> 그와 같은 활동중, 그는 1946년 7월 11일과 15일 그의 社會大學同志이며 民主同盟의 重鎮인 李公樸과 또한 역시 民主同盟의 지도적 인물이며 學者·詩人인 聞一다가 연이어 昆明에서 암살되었다는 소식과 그 다음 목표는 陶자신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후 陶는 친구의 권고에 따라 上海市內 한 아파트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詩稿 10萬餘語를 정리하다가 건강과 과로로 7월 25일 쓰러져 숨을 거두니 그의 나이 55세였다.

45) 齊藤, 評傳 陶行知, pp. 220~223; 陶行知, “社會大學運動,” 文集, pp. 803~806; 郭方倫 “訪陶行知先生談社會大學,” 文集, pp. 807~810.

46) 余介之, p. 132.

### Ⅲ. 陶行知的 教育思想

도행지의 교육사상은 前述한 바 曉莊學校시절에 정립된 이른바 ‘生活教育’思想에 의하여 대표된다. 그의 교육사상은 앞에서 본 것처럼 효장시기 이후에도 시기와 정국의 추이에 따라 不斷한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도 모두 기본적으로는 生活教育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 1. 生活教育의 개념과 내용

生活教育은 陶가 그의 스승 존 듀이의 교육철학인 ‘教育即生活’사상을 중국사회에 적용하려다 실패한 후 중국적 현실에서의 여러가지의 경험과 평소 그의 강력한 사회개혁의지가 결합되어 듀이의 철학을 극복 내지는 번복하여 만들어 낸, 당시의 중국현실에 밀착한 독특한 교육철학이라 할 수 있다.<sup>47)</sup> 그러한 생활교육은 三大主張을 그 이론적 支柱로 하고 있다. 즉 “生活即教育”, “社會即學校”, “教學做合一”이 그것이다.

##### (1) 生活即教育

陶에 의하면 生活教育은 “生活이 원래 갖고 있는, 생활이 스스로 운용하는, 생활이 필요로 하는 교육”(生活所原有, 生活所自營, 生活所必需的 教育)으로 정의된다.<sup>48)</sup> “生活이 원래 갖고 있는 생활”, “生活이 스스로 운용하는 교육”이란 말은 生活속에 교육이 배태되어 있으며 생활자체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인류사회의 每 역사적 단계는 그 사회 그 시대의 독특한 교육제도와 내용을 가지며, 교육은 생활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생활과 교육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보았

47) 華東師範大學教育系教科所編, 「中國現代教育史」(上海, 新華書店, 1983), p. 395; Philip A. Kuhn, “T'ao Hsing-Chih, 1891~1946, An Educational Reformer,” *Papers on China*, Harvard Univ., Vol. 13 (Dec. 1959), pp. 182~187.

48) 陶行知, “什麼是生活教育,” 論文選輯, pp. 1~2.

으니, 즉 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중에 교육의 필요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긴 교육은 생활을 일정한 수준까지 향상·변화시키며, 또 향상된 생활은 다시 교육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육은 생활을 위한 것이며 生活의 變化에서만이 그 근본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49)</sup>

陶의 이러한 교육관은 당시 중국의 특수한 사회상황하에서 중국실정에 맞는 교육노선을 모색하던 중에 產生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교육은 물론 공식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平民識字教育에서 鄉村教育에 이르기까지 주로 大衆教育에 헌신해온 陶에게 있어서 교육은 직접적으로 대중의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어졌다. 왜냐하면 종래 학교교육은 그 내용이 대중의 생활과 유리되었고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貧苦한 중국의 대중들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대중들에게는 생활자체가 유일한 교육의 원천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중의 교육은 그들의 삶을 위한 노력안에 있는 것이며, 그렇게 볼 때 교육은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陶는 주장하는 것이다.<sup>50)</sup>

“生活에 필요한 教育”이라는 것은 위의 대중생활을 위한 교육이란 개념과 연결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삶의 手段을 제공하고 생활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말한다. 陶의 말을 빌리면 “인생엔 食物이 需要함으로 食物을 얻는 교육을 하고, 인생은 穿衣가 需要함으로 옷을 얻는 교육을 해야 하며, 인생엔 住居가 필요한 고로 住居를 만드는 교육을 해야하고, 인생은 男女生活이라 교육은 마땅히 男女關係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sup>51)</sup> 그런 의미에서 “生活教育은 裝飾物的인 전통교육과는 전혀 다르다”고 陶는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생활교육은 생산적이며 실용적 교육을 그 本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교육은 단순히 생활수단의 제공

49) 陶行知, “生活教育之特質,” 同上書, p. 4.

50) 同上, p. 5.

51) 陶行知, “什麼是生活教育,” p. 3.

에 그쳐서도 안된다고 한다. 거기서 進一步하여 “生活의 變化”(改善—筆者註)를 가져오지 않으면 교육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力量을 기르고 사회를 改造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sup>52)</sup> 이러한 교육관이 “생활은 곧 교육”이라는 개념속에 암축하여 표현되어 있으며, 이것이 생활교육사상의 第一命題인 것이다.

## (2) 社會即學校

생활교육의 第2命題는 “사회는 곧 학교”라는 관념이다. 이것은 쑨 두이의 “學校는 곧 社會”라는 개념을 뒤집은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영역에 관한 것으로 학교를 사회의 模型으로 보기보다 학교를 사회의 일부분으로 보는 동시에 사회전체를 하나의 “廣大한 教室”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로이건 골목이건 鄉村, 工廠, 店舖, 監獄, 戰場이건 무릇 인생과 관련된 곳이면 모두 우리들의 자기를 교육하는 장소”라는 것이다.<sup>53)</sup> 호장학교 때에 陶行知가 학생들에게 시계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학생들을 학교 부근의 시계수리점으로 데리고 간 것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농민과 접촉하고 농사일을 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토록 한 것이나, 淮安의 新安小學生들로 하여금 兒童旅行團을 조직하여 “一·二八戰區”와 上海各地를 여행케 함으로써 日本帝國主義者들의 침략의 殘暴과 大衆의 어려움을 깨닫게 한 것은 陶의 이 “社會는 곧 教室”이라는 신념의 실천적 예인 것이다.<sup>54)</sup>

陶는 또 “社會는 곧 教室”이라는 命題를 역사적으로 풀이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있는 이래 사회는 학교였으며 생활은 교육이었다. 士大夫는 그것을 인정치 않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특수학교에서 그들의 자제들에게 특수교육을 하기

52) 同上, p. 2.

53) “生活教育的特質,” pp. 6~7.

54) 前掲 曉莊之一頁, pp. 55~56.

때문이다. 그러나 大衆의 立場에서 보면 사회는 대중의 유일한 학교이며 생활은 대중의 유일한 교육이다.<sup>55)</sup>

陶는 또한 “사회가 곧 학교”라는 원칙은 교육을 새장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라면서 새의 진정한 세계는 새장이 아니라 울창한 森林인 것처럼 학교의 문을 개방하여 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6)</sup> 즉 전통적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를 위해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와 사회간에는 높은 담이 있었는데 “사회가 곧 학교”인 교육에 있어서는 그러한 높은 담을 깨뜨려 학교의 一切를 大自然으로 신장시키며, 모든 사람들로 선생을 삼고, 모든 사람으로 同學을 삼고, 모든 사람으로 학생을 삼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7)</sup> 요컨대, 陶는 역사적으로 大衆民主主義時代인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廣大한 勞苦大衆을 가진 중국적 상황에서는 소수의 특수계급을 위한 전통적 교육이 아닌 大衆을 위한 大衆자신이 하는 大衆教育이 되어야 하며, 大衆教育에 있어서는 고립된 학교가 아닌 社會全體가 學校가 되어야 하고 대중생활 一切가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3) 教學做合一

생활교육사상의 第三命題는 教育方法論으로서의 “教學做合一”原理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일(행)하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직접 陶의 말을 빌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이의 방법에 맞도록 하고, 문제에 대한 자기의 답을 주는 대신 배우는 이가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르치는 이는 一面 가르치면서 一面 배워야 한다.” 때문에 “선생과 학생간에는 엄격한 분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60의 老翁도 6세의 아동에게 배울 수 있다. 만나면 서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sup>58)</sup> 뿐만

55) “什麼是生活教育,” pp. 2~3.

56) 同上, p. 1.

57) 同上, p. 2.

58) “教學做合一,” 論文選輯, p. 13.

아니라 이 원리는 가르치는 것도 행동을 통해서 해야하고 배우는 것도 행동을 통해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씨뿌리는 일은 밭에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씨뿌리기는 밭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수영은 물속에서의 행동이다. 故로 수영은 물속에서 손발을 움직여 배워야 한다.” 한걸음 나아가서 “教室에서 種稱에 관해서 講解하는 것은 講解自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種稻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실제 種稻에 이르지 못하는 講解와 책읽기는 소용없는 講解요 죽은 지식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種稻的 教學做”이며 “一切 生活의 教學做가 그와 같다.” 다시 말하면, 陶의 “教學做合一”이란 “做”(일, 행위)를 위해서 그리고 “做”를 중심으로 教와 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59)</sup>

#### (4) 在勞力上勞心

교육의 과정에서 “行爲”를 강조한 陶는 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독특한 교육개념을 제창하였다. 그것은 “在勞力上勞心” 즉 “육체노동에 기초한 정신노동”의 관념이다. 이 관념을 설명하는 중에 陶는 세상사람들을 4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① 정신노동자(勞心的 人), ② 육체노동자(勞力的 人), ③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겸하거나 분리하는 자(勞心兼勞力, 勞力與勞心分家的人), ④ 육체노동에 기초하여 정신노동을 하는 자(在勞力上勞心人)가 그것이다.<sup>60)</sup>

陶에 의하면 육체적 노동만 하는 자는 독창성을 결여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두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모든 동작이 日常的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이 남의 시킴과 制裁만 당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쉽게 남의 기만과 착취, 그리고 억압의 대상이 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를 이루게 되는 소지를 마련케 되는 것이다.

다음 정신노동만하는 자는 陶의 의견에 의하면 空理空談만 弄하기 쉽고

59) 同上.

60) “在勞力上勞心.” 同上書, p. 19.

한날 “高等游民”이 될 뿐이어서 그들의 주위환경을 改善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세번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하는 자도 진보와 발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노동을 하되 생각없이 하고 정신을 쓰기만 하고 노동을 안한다면 진정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육체노동을 기초(또는 전제로)해서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즉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연결시키되 정신노동의 성과를 스스로 육체노동을 통해서 실시하고 구현하는 자만이 창조와 사회개혁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陶는 진정한 교육은 정신노동자로 하여금 육체적 노동을 할 줄 알게 가르치고(教勞心者勞力), 육체노동자는 두뇌를 쓸 줄 알도록 가르쳐서(教勞力者勞心),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을 연결할 줄 아는 “在勞力上勞心者”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勞力上勞心者”가 될 때 사회는 廢人이 없고 階級이 없으며, 자연을 정복하여 평등과 정의가 지배하는 理想世界인 “大同社會”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sup>61)</sup>

위와같은 原則들 외에도 陶는 생활교육과 관련하여 “거짓지식(僞知識)”을 버리고 “참다운 지식(眞知識)”을 얻을 것과 과거의 전통교육에서와 같이 帝王에 依付하여 村官發財를 목적으로 하고 “搶飯吃”(밥을 뺏어 먹기), “騙飯吃”(밥을 사기하여 먹기)로 사람들을 해하는 “人上人”의 소수 지식 분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大衆속에서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는 “人中人”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생활교육의 목적이라 하였다.<sup>62)</sup> 그러면 여기서 陶가 말하는 “참지식”과 “거짓지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지식의 획득과정과 내용 및 목적에 관계가 있다. 즉 “거짓지식”은 자기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고 검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傳해지는 지식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 내용이 실제생활과 동떨어질

61) 同上書, p. 20.

62) “教人民起來做主人,” 同上書, p. 3.

뿐만 아니라 개인의 富貴榮達과 他人위에 君臨하는 도구로 쓰이는 지식을 가르키고 있다. 反面에 “참지식”은 知慧처럼 자신의 경험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실제 생활에 所用되고 풍부케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陶는 “거짓지식”은 “官貴人, 劣紳, 土豪”와 같은 계급을 형성하되 “참지식”은 어떠한 계급도 형성치 않는다고 한다.<sup>63)</sup> 그리하여 그는 당시 중국 농촌에 지배세력으로 殘存해 있던 傳統的 鄉紳과 土豪 세력을 반대하고 농민대중을 옹호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陶는 그러한 생활교육의 대중적인 성격을 민족주의적인 면으로 연결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생활교육의 使命을 천명한 데에 잘 나타나 있다.

中國은 이미 生死關頭에 처해 있다. 대중의 해방이 생활교육의 역사적 사명이라면,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중화민족의 해방의 爭取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중화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교육하여 서로 연합하여 國難을 해결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大衆文化를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영토와 주권의 完整을 保衛하고 중화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는 것은 生活教育同志들이 당면하고 있는 天職인 것이다.<sup>64)</sup>

즉 위의 글에서 우리는 陶가 생활교육을 통한 대중생활의 향상과 그들의 力量增大를 바로 중국의 완전독립을 위한 민족의 역량증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위에서 그 大綱을 논의한 陶의 生活教育思想은 개성의 발견, 實用主義, 그리고 實驗主義를 근간으로 하는 존 듀이의 교육철학의 中國的 現實에서의 變容으로서 大衆生活의 改善, 平等社會의 실현, 民族과 國家의 獨立爭取를 그 목표로 하고 교육의 대중화, 실용화, 행동화, 그리고 토착화를 그 수단으로 하는, 社會改革的, 民族主義의 교육사상이라 할 수 있다.<sup>65)</sup>

63) 陶行知, “偽知識階級,” 文集, pp. 191~201.

64) “生活教育的特質,” 前揭書, p. 7.

65) 참고로 陶는 1936년 발표한 “生活教育之特質”이란 글에서 生活教育의 특징을 ①生活的, ②行動的, ③大衆的, ④前進的, ⑤世界的, ⑥有歷史聯系的의 6

## 2. 生活教育의 狀況의 演進

### (1) 民族主義教育의 강조

우리는 앞에서 曉莊時 定立된 生活教育思想내에 이미 강한 민족주의적 요소가 있었음을 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는 1930年代初 중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강화와 더불어 陶의 교육사상에 있어서도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前述한 바, 1930年 봄 曉莊學校의 폐쇄후 約 1年間 일본에 망명했다가 귀국후 上海에 은거하던 陶는 1931년 9월부터 申報에 “自由談”이라는 固定欄(칼럼)을 얻어 “不除庭草齋夫”라는 筆名으로 政治·社會·教育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1931년 9월 18일 “滿洲事變”이 일어나자 南京國民政府는 거의 無抵抗政策을 취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陶는 同年 10월에 이미 自由談欄을 통하여 戰時課目的 실시와 민중의 무장투쟁을 호소하였다. 陶는 戰時的 공부는 “몇개의 애국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나 木銃을 가지고 학생들을 정열시키고 구보나 하는 따위의 형식적인 훈련이어서는 안되며” 실제로 배워서 敵에게 應戰할 수 있는 “眞本領”의 군사훈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남학생의 眞武器를 이용한 무장과 實戰의 긴급학습, ② 여학생의 眞武器로 무장과 간호기술 학습, ③ 對日經濟斷絶의 선전과 실시, ④ 일본에 대한 연구, ⑤ 東己省에 대한 연구, ⑥ 국제대세연구 등 12가지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民衆의 救國力量을 믿고 그들의 무장과 義勇自衛軍 형성을 도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국가의 生死關頭에 처하여 전국민이 궤기하여 무장투쟁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sup>66)</sup> 또한 같은 自由談欄에서 약 1년여에 걸쳐 연재하였고 그것의 實體化가 山海工學團으로도 나타났던 “古廟敲鐘錄”에서도 陶는 滿洲가 日本軍에게 占領되어 중국민족이 生死關頭에 서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민족은 普遍的 軍事訓練과 함께 보편적 생

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同上書, pp. 4~7.

66) 陶行知, “戰時的功課,” 文集, pp. 306~307.

산훈련, 보편적 識字訓練, 보편적 민권훈련, 보편적 生育訓練의 실시를 주장하였다.<sup>67)</sup> 그리고 그의 이와같은 '民族解放'과 국가방어를 위한 교육의 강조는 1935년 12·9운동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前述한 바 1936년 2월에 발표한 "國難教育方案"草案에서 그는 工人·農民을 비롯하여 婦女, 學生과 商人에 이르기까지 國難教育을 실시할 것과 그 내용으로서 중국민족의 자유와 평등의 쟁취와 영토·주권의 完整을 목표로 하는 구국적 교육과 무장항일의 配合, 그리고 세계약소민족과의 공동분투를 역설하였다.<sup>68)</sup> 또한 "7·7事變"과 "8·13上海抗戰" 이후 陶가 주창한 戰時教育運動에서도 모든 교육에 있어서 抗戰을 위주로 하고 민중의 조직을 교육하여 모두 政治工作團體로 발전시키며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특히 鄉村에 注重할 것을 제안하였다.<sup>69)</sup> 그리고 1938년 그가 參政會 參政員으로 피선됐을 때에도 앞의 戰時教育方案을 수정하여 決案件으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全國의 모든 物資와 人力을 총동원하여 日軍과 總決戰을 감행할 것과 모든 국민이 계층과 직업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抗戰에 참여케 하는 全面(抗戰)教育運動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sup>70)</sup> 이러한 陶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國民政府에 의해 채택치 않았으나 日帝의 노골적 침략 확대를 맞아 陶의 생활교육의 民族主義的 경향이 더욱 前面으로 부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民主教育運動

1945년에 들어와서 太平洋戰爭에서의 日本軍의 連敗의 영향으로 中日戰에서도 日軍의 敗色이 완연해 지자 陶行知는 戰時教育에서 民主教育運動의 제창으로 전환하였다. 그것은 머지 않은 終戰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和平·民主統一國家의 수립·유지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67) 齊藤秋男, "反動支配下の中國知識人と 前衛—陶行知の "改良" から "革命" への轉化をめぐる一," 思想, No. 366 (1954. 12), p. 85.

68) 余之介, 前掲論文, pp. 128~129.

69) 同上書, p. 129.

70) 同上書, p. 130.

1945년 5월에 陶는 “實施民主教育的提綱”이란 論文을 내고, 계속해서 여러 글을 통하여 그의 民主教育觀을 피력하였다. 1945년 11월 「民主教育」誌에 발표한 “民主教育”이란 글에서 陶는 “민주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主人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써 自己의 主人이 되고, 國家의 主人이 되며,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하는 교육”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① 교육의 목적은 教育爲公에서 天下爲公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적극적 방면으로는 모든 人民의 철저한 교육기회균등을 요구하고 소극적방면으로는 黨化教育(國民黨爲主教育—일차)에 반대하고, ② 인민들로부터 파시스트 세균을 숙청하여 진정한 민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③ 인민들의 覺悟性을 계발하여 그들 스스로 自覺的 學習을 진행하고 스스로 紀律을 준수케하고 스스로의 工作과 奮斗에 종사케 가르치며, ④ 창조력을 배양하여 창조적 민주와 민주적 창조를 실현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sup>71)</sup> 또 이어 다음 달에 발표한 “民主教育之普及”이란 글에서는 “민주교육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가르쳐 民主를 쟁취토록하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民主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民主爭取”나 “民主發展”이나 모두 廣大한 人民의 群策과 群力에 의지함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廣大한 人民의 力量을 기르되 그들의 需要에 주의하고 個人과 集體的 創造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全人民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72)</sup>

그런데, 陶는 1946년에 진정한 민주사회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大衆들에 대한 민주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領導階層들도 民主를 위한 再教育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中國人은 사회의 上·下層을 막론하고 민주교육을 받은 바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계통적으로 反民主的 變種 파시스트 訓政을 받았기 때문에 재교육을 통한 一切의 不民主와 反民主의 觀念과 태도를 청산치 않으면 ‘獨裁作風’을 면

71) “民主教育,” 文集, pp. 792~793.

72) “民主教育之普及,” 文集, pp. 794~796.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再教育의 새로운 民主作風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었다. ① 民을 貴하게 보고 人民第一과 一切를 人民을 위하는 것, ② 天下爲公, 文化爲公으로 하고 일을 독단하거나 징수한 것을 私有로 하지 않는 것, ③ 겸허한 마음으로 學習하여 廣益에 생각을 집중하고 자기 주장을 확립하는 것, ④ 자기의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他人의 말도 인정하며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의논하는 것, ⑤ 민주가 도달하기 전에는 연합될기하여 민주를 爭取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며, 인민의 기본자유가 획득된 후에는 민주원칙에 의한 공동창조를 기하는 것이다.<sup>73)</sup>

그리고 그러한 再教育에 있어서는 일반백성(老百姓)과 어린아이들(小孩子)이 좋은 教師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74)</sup> 전자의 뜻은 人民을 위해 봉사(服務)하기 위하여는 人民과 같이 호홉하며 그들의 문제와 바라는 바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후자는 어린이 적부터 그들의 창조성을 존중·개발하여 사회에 공헌·봉사하도록 도와주어야 중국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陶의 人民至上의 “民主教育”사상은 당시 여러 대중집회에서 그의 국민당 당국의 19년 執政에 대한 비판과 內戰停止·民主·和平을 요구하는 활발한 정치활동<sup>75)</sup>과 함께 국민정부당국에게는 틀림없이 중공에 동조하는 不純·急進사상으로 여겨졌을 것이었다. 따라서 陶는 국민정부에게 要注意人物이 되었으며, 가까운 주위 同志를 잃고 자신마저 우려와 긴장중 1946년 7월 은신처에서 不歸의 객이 된 것이었다.

73) “領導者再教育,” 文集, pp. 811~813.

74) “小學教師與民主運動,” 文集, pp. 816~821.

75) “怎樣可以得和平,” 文集, pp. 822~823.

## IV. 陶行知教育思想批判

### 1. 陶恩批承判의 背景

#### (1) 중공초기(1950~52)의 사상개조운동

1949년 10월 1일 중국대륙을 제패, 새로운 중앙정부를 수립한 중공의 당면과제는 혁명과 내전으로 파괴되고 피폐한 국민경제의 재건과 사회주의정권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치기반의 강화였다.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공당국은 당분간 정치·사회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지양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정치면에서 국민정부의 예상밖에 빠른 붕괴로 인하여 갑작스레 광대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게 된 중공정권은 정치적 저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행정기술을 가진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중공의 당원과 관리의 신속한 모집노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내에 수요인원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중공당국은 정치권력이 강화될 때까지 영구적 정부기구의 조직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당분간 신민주주의이념과 통일전선정책을 표방하면서 임시기구<sup>76)</sup>를 이용하고 전 국민당관리와 기존 제정당 및 지식인들을 되도록 많이 회유·수용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정국의 파악과 민심을 수습하는 동시에 '반혁명 분자'를 제거함으로써 정치력의 강화를 꾀하였다. 다시 말하면, 1950년 전반까지 중공은 제분야에 온건노선을 취하면서 과거 국민당치하의 많은 지식인과 교육가들을 그들의 교육과 문화건설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1950년 후반기부터 정권의 지방조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중공당국은 당의 새로운 정치력을 대중사이에 침투시키고 사회주의사회건

76) 1954년 헌법제정이전의 임시통치 및 행정기구는 人民政治協商會議, 軍事管制委員會, 지방인민정부 등이었다. 拙稿, “中共政治 30年の理想과 現實,” 李炳柱 撰, 「現代中國論—建國에서 鄧體制까지—」(청남논단 9, 서울, 1984), p. 14 참조.

설을 위한 본격적 정치작업으로써 일련의 급진적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1950년 중반부터 1952년 말까지 추진된 土地改革, 新婚姻法, 反革命鎮壓, 三反 및 五反運動은 그러한 대중운동이었다.

그런데, 이들 정치·사회운동과 더불어 이념과 사상을 가장 重視하는 중공이 사상과 문화면에서의 사회주의사회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할 리가 없었다. 毛澤東은 이미 1950년 6월 人民政治協商會議 第一期全國委員會 第二次會議에서 批判과 自己批判의 方法으로 自己教育活動을 전개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sup>77)</sup> 그는 또, 1951년 10월 人民政治協商會議 第三次會議에서 다시 지식분자의 사상개조가 민주혁명의 철저한 실현과 공업화의 실행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적 “사상개조운동”을 촉발시켰다.<sup>78)</sup> 이 사상개조운동은 ‘各界人民’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주된 대상은 毛가 언급한 대로 지식인이었으며 국가의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었다. 이 사상개조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지식분자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중공의 들러리 群小政黨中 가장 큰 것의 하나인 民主同盟의 조직위원회 主任 胡愈之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민, 특히 각종의 지식분자로서 舊社會로부터 가지고 온 반동사상과 잘못된 사상을 소멸시켜 新社會의 발전의 실제상황에 합치하는 정확한 사상,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혁명의 실천에 합치하고 있는 毛澤東思想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sup>79)</sup>

또한 胡는 사상개조의 최종목적을 “그들(구사회로부터의 지식분자——筆者)을 노동자계급의 지식분자로 轉化시켜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에 의하여 무장된 혁명의 전사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이어

77) 平野正, 「中國革命の知識人」(日中出版, 東京, 1977), p. 201; 劉昌臨, 「鬪爭武訓與改造思想」(自由出版社, 香港, 1952), pp. 84~85.

78) 同政治協商會議三次會議 常務委員會는 工作報告에 관한 決議에서 抗美援朝·愛國增產節約運動과 병행해서 思想改造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이 全國의 규모의 思想改造運動의 본격적 시작이었다. 平野正, 上揭書, p. 201.

79) 同上書, p. 202.

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전개하여 新思想으로 舊思想을 배제하고 新思想으로 舊思想으로 바꾸며, 모든 반동적이고 그릇된 사상을 一掃시키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에 의해 스스로 무장시켜야 된다”고 하였다.<sup>80)</sup>

이러한 사상개조투쟁은 한편으론 胡適, 梁啓超 등에 대한 비판운동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高級知識分子인 대학이나 전문학교 교수가 좌담회에 동원되거나 개인적으로 자아비판을 행하고 사상개조학습에 참가시키는 兩面으로 행해졌다. 그 현저한 예로 1951년 12월 9일 上海大公報, 天津進步日報社 北京辦事處가 주최한 「批判改良主義座談會」는 그 한 예인 데, 費孝通(民族學院 副院長), 錢端升(北京大學 法學院院長), 陶孟和(中國學院 副院長), 潘光旦(講華大學 教授) 등 10여인이 참가하여 자아비판을 행한 것을 들수 있다.<sup>81)</sup> 또한 이들 이외에도 北京과 天津의 각 대학과 고등학교 20여개교의 교수와 교사들이 中共 中央教育部 주관하에 우선적으로 약 4개월정도의 사상개조학습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개조학습은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다.<sup>82)</sup>

사상개조학습방법은 中共文件閱讀, 中共各種報告聽取, 批判 및 自我批判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文件閱讀은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 史的唯物論, 實踐論 중심의 毛澤東思想 등 공산주의 이론학습이었으며, 자아비판은 自己의 階級性 폭로와 舊思想批判 및 반성이었는데, 비판의 主對象은 個人主義, 自由主義思想과 “超階級”, “超政治”, “中間路線”, “純學術觀點” 등의 입장, 그리고 “個人英雄主義” 태도 등 이른바 小資產階級(쁘띠·부르조아)의 改良主義思想과 立場이었다.<sup>83)</sup>

요컨대, 사상개조운동은 중공의 정권장악 후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자, 그때까지 용인하던 지식인들의 사상적인 독자성을 개조하여 중공의 이

80) 同上書, pp. 202~203.

81) 劉昌臨, 前揭書, p. 92.

82) 同上書, pp. 85~86.

83) 同上書, pp. 86~87, p. 90; 平野正, p. 206.

념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에 순응 내지는 적극적 지지자로만 들리는 일종의 整風運動이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주안점은 증공이념에 비추어 지식인들의 과거부터 지낸 사상적 오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는 바, 그러한 오류로 지적된 것이 小資產階級的 改良主義思想이었다. 陶行知思想批判도 이러한 사상개조운동의 일부로서 일어난 것이며, 그것은 陶가 重慶시절에 찬양한 바 있는 清末 乞人 教育家 武訓의 비판으로 시작되었다.

## (2) 武訓傳批判

武訓은 清末 山東省 堂邑縣 武家莊 출신으로서 早失父母하고 어려서부터 乞人生活했는데 자신의 不學을 恨으로 삼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興學을 결심하고 30여년간 갖은 고생과 노력끝에 돈을 모아 마침내 「崇賢義塾」을 비롯하여 3개의 학교를 세운 인물이다. 그의 興學을 위한 평생의 至誠어린 노력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樂天의이고 겸손한 생활 태도는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동정을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59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鄉民의 수가 萬餘名에 달하였고 당시의 山東巡撫 袁樹勳의 奏請으로 그의 傳記가 國史館立傳에 오르고, 또한 그의 위패가 三縣(堂邑, 館陶, 臨清)의 「鄉賢祠」에 모셔지고 그를 위한 「忠義專祠」도 건축되었다 한다<sup>84)</sup>.

따라서 武訓의 行蹟은 山東省은 물론이거니와 全國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清末부터 民國時代를 거쳐 國民政府期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많은 교육자들의 “表揚”의 대상이 되었다. 清末 梁啟超는 「新民叢報」에 “武訓先生傳”을 발표하였으며, 民國時代에는 武訓의 事蹟이 平民教育家的 모범으로 교과서에 실렸고, 國民政府期에도 山東省政府의 후원 아래 山東省教育界가 각종 武訓紀念行事와 사업을 행함은 물론 上海등지에서도 紀念會가 크게 열린 바가 있다.<sup>85)</sup>

84) 劉昌臨, 前揭書, “武訓生年,” pp. 18~29에서 요약.

85) 同上書, pp. 31~32.

그러나 앞절에서도 잠깐 시사했지만 武訓의 행적을 表揚하고 그 정신을 본 받기를 제창하는 데 가장 힘썼던 사람은 陶行知라 할 수 있다. 陶는 “武訓은 ① 無錢 ② 無靠山(후원자도 없음), ③ 無學校教育한데도 능히 3개의 학교를 경영했다. 이것은 진실로 中華民族의 근로, 용감, 지혜, 숭고한 品質의 전형적 표현이다”라고 武訓을 극찬하였다.<sup>86)</sup> 그리고 매년 武訓의 생일마다 紀念會를 주관하고 강연과 自作歌를 통하여 武訓의 정신을 선양하였다. 그러면 陶가 그토록 武訓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방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적 상황에서는 武訓과 같은 사람이 緊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40년대 초 그가 育才學校를 전란과 정부의 방해 등 어려운 가운데서 경영해 갈 때, 그의 처지가 武訓과 같이도 생각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陶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同志와 育才學校 학생들에게 「武訓精神」을 강조함으로써 난국을 헤쳐나가는 용기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武訓이야말로 중국적 상황에서 맨주먹으로 최선을 다하여 대중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 모범적 인물로 보았고 모든 국민이 그에 의해 자극되고 그를 본받아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陶는 武訓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武訓先生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다. 그는 보통사람이며 한 사람의 정상적인 백성으로서 일생동안 한가지 일, 즉 興學을 했을 뿐이다. 교육이 발달하지 못하고 문맹이 인구의 80%이상인 곳에서 興學하는 일은 한 사람 보통 사람의 책임인 것이다. 그런데 모두 그 책임을 잊었으며 武訓선생만이 그 책임을 다했다.……우리는 武訓선생을 특별한 일을 한 사람으로 보는 적은 관점에서 해방시키고, 일반 백성도 본래의 면목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興學의 특별한 일이 일반백성의 일상적 일이 될 때를 기다린 연후에야 全民教育과 教育爲公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진보적 친구들은 武訓을 苦行者로 보고 그

86) 陶行知, “武訓先生 齋傳再版跋” 文集, p. 745.

가 혁명의 시대에 혁명역량을 분산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관점은 옳지 않다. ……武訓先生이 자신의 최선을 다함을 배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무훈선생으로 될 수 있다면 교육보급의 성공 뿐만 아니라 2,30년 안에 1個 독립, 자유, 평등, 진보적 신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sup>87)</sup>

그런데 당시 武訓을 칭송한 것은 陶行知만이 아니었다. 陶와 친밀한 관계이고 유명한 직업교육의 선구자인 黃炎培, 鄉村教育家 江問漁, 그리고 中共黨員이며 후에 中共 教育部長을 지낸 馬叙倫 등도 이구동성으로 武訓을 찬양하였다.<sup>88)</sup> 또한 統一戰線戰略에 따라 진보적 지식인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맺으려 노력하고 있던 中共당국도 그들에 동조하였다. 중공은 武訓을 “지혜가 충만한 反抗行爲의 人”이며 또한 “피압박 被剝削的 勞動人民의 先覺者”라고 하면서 無產階級知識分子的 典型으로 칭송했다.<sup>89)</sup>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공당원이고 또한 오랜 영화연출가인 孫瑜는 武訓의 一代記를 “武訓傳”이라는 제목으로 1947년부터 3년간 많은 돈을 들여 映畫化하였다.<sup>90)</sup> 그리고 이 영화는 1950년 12월말 부터 上海에서 상영되었는데 각 학교와 공장, 단체, 특히 문화·예술조직이 동원되어 연일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大衆電影」을 비롯하여 「解放」, 「文匯」, 「亦報」등 잡지와 신문들은 논평을 통하여 「武訓傳」의 영화로서의 우수성과 함께 그 敎訓性(제급성과 人民服務精神)을 극찬하였다. 그 결과 「武訓傳」은 1950년도 중공의 “十大國產進步電影”의 하나로 뽑혔으며, 그러한 인기는 1951년 초까지 지속되었다.<sup>91)</sup>

그러나 1951년 4월 하순 上海의 「文匯報」는 武訓傳의 시대적 가치를 부인하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sup>92)</sup> 그리고 얼마 안있어 5월 17일 北京 「人民

87) 陶行知, “把武訓先生解放來—爲武訓先生誕辰一百零七周年紀念而寫—,” 文集, pp. 797~799.

88) 劉昌臨, p. 35.

89) 同上書, pp. 35~36.

90) 同上書, pp. 17~18.

91) 同上書, p. 18, pp. 36~37.

92) 두편의 논문은 賈霽의 “不足爲訓的 武訓” 「文藝報」(4卷 1期)와 楊耳의 “陶行

日報」는 4월에 「文匯報」에 실린 揚耳의 “陶行知先生이 「武訓傳」을 表揚한 것은 積極적 作用이 있는가”라는 글을 轉載하면서 「武訓傳」에 관한 진보적 토론이 많이 일어나기를 중용하였고 또 이어서 5월 20일자 「人民日報」社說과 “黨的生活”란에서 「武訓傳」에 관한 토론을 중시할 것과 모든 公산당원은 武訓傳批判에 參加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sup>93)</sup> 이것이 中共의 武訓傳批判運動의 전개를 제창한 공식 신호인 바, 5월 20일자 「인민일보」의 社說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武訓은 清末 中國인민이 外國침략자와 國內봉건지배자에 반대하는 위대한 투쟁을 하던 시대에 봉건경제의 기초와 그 상층건축에 대해서는 손가락하나 까닥하지 않고, 오히려 열광적으로 봉건문화를 선전하고 봉건문화 중 지위를 얻기 위하여 지배자에게 아첨과 모든 비굴한 행위를 能事로 한 추악한 인간이다. 그러한 인물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中國역사를 더럽히고 反動宣傳을 正當한 선전으로 인식하는 잘못이며, 「武訓傳」영화가 나왔을 때 그것을 찬양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해방 후 中國 문화계의 사상적 혼란이 어느 정도 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中共黨員中 많은 예찬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歷史唯物論을 배웠으나 구체적인 역사사실, 역사인물, 또는 反歷史思想에 대해서는 비판능력을 상실한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은 反動思想에 투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武訓傳」영화나 武訓에 관해 찬양한 著作과 論文에 대해서 토론을 전개하여 사상적 혼란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작된 「武訓傳」批判운동은 여러방면으로 철저히 전개되었다. 中共당국은 우선 「武訓歷史調查團」을 조직, 武訓의 生地에 가서 武訓의 平

知先生表揚「武訓傳」有積極作用嗎?” 同書, (4卷 2期)로서 兩篇 모두 武訓精神의 시대적 가치를 부인하면서 陶行知의 武訓讚揚도 비판하고 있다. 華南人民出版社 編輯部 編, 「武訓與武訓傳批判」(이하 武訓傳批判), (출판연도 未詳) pp. 56~69, 70~74.

93) “應當重視電影「武訓傳」的討論”(人民日報, 1951. 5. 20) 同上書 所收, “共產黨員應當參加關於「武訓傳」的批判” 人民日報 “黨的生活”(1951. 5. 20), 同上書 所收.

生을 再調査케 하고 그 결과를 51년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人民日報」에 연재하였다.<sup>94)</sup> 조사기록의 내용은 武訓의 興學이 正當한 저축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封建支配者의 원조와 高利貸行爲로 축재한 것으로 한 것으로서 그는 근본적으로 封建秩序의 옹호자이며 비굴한 굴종자였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武訓傳」을 연출한 孫瑜를 비롯한 이전의 武訓讚揚者들이 「人民日報」와 기타 紙上을 통해 자아비판의 글을 발표하였다.<sup>95)</sup> 또한 北京에 全國文學藝術聯合會와 지방文化界는 「武訓傳」비판 좌담회와 문예공작방향문제학습회를 열어 「武訓傳」과 관련된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였다.<sup>96)</sup> 동시에 전국 문화계와 教育界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각 신문과 잡지등을 통하여 「武訓傳」에 관한 것 외에도 歷史人物의 各색, 米화, 왜곡에서 사실주의, 역사학과 문학과의 관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에 관한 紙上討論을 벌였다.<sup>97)</sup>

그와 같은 수개월에 걸친 武訓問題討論은 教育部 副部長 錢俊瑞의 “武訓問題討論으로부터 우리가 배운것은 무엇인가”라는 논문<sup>98)</sup> (「人民教育」, 1951년 9월호)에서 總括되었는데,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 우선 武訓에 대해서 첫째, 武訓은 빈한한 가정출신이나 勞動人民을 離反하고 乞人행세를

94) 이 조사단은 모두 中共黨員으로 구성되었고 그의 考察團, 訪問團 등은 中共黨과 各黨各派에서 혼합조직하였으며, 단장에는 郭沫若, 費孝通 등이 담임하였다, 劉昌臨, 前掲書, pp. 65~66; 齊藤秋男, “武訓問題から陶行知批判へ,” 「教師の友」(1954. 5), p. 20.

95) 「武訓傳」찬양과 관련된 자아비판과 기타 자료들은 前掲「武訓與武訓傳批判」에 總 23篇이 실려있다.

96) 華南文化界批判「武訓傳」第一次座談記錄, 同上書, pp. 9~29.

97) 劉昌臨, pp. 58~64; 1951년 6월에는 教育계가 武訓批判運動에 積極적이 아니라 하고 하면서 中央教育部는 各 학교 방학을 이용, 광범위한 토론을 전개할 것을 지시 하였다. 「人民教育」3卷 5期(1951. 9), p. 13(編後) 참조; 徐特立, “「武訓傳」의 討論은 一個嚴重的政治問題,” 「徐特立教育文集」(中央教育科學研究所編), (人民出版社, 北京, 1979) p. 231(原載人民教育 3卷 3期(1951. 7. 1)).

98) 錢俊瑞, “從討論武訓問題我們學到些什麼,” 「人民教育」3卷 5期(1951. 9), pp. 7~13.

하면서 興學을 내걸어 지주악당들과 결탁하고 滿清反動政府의 특권을 받아 당시의 農民革命을 반대한 지주계급과 반동정부에 충성한 흉악한 流民이며 大債主와 大地主였다. 둘째, 武訓은 資產階級이나 小資產階級の 改良主義者가 아니라 (그의 계급적 지위나 행동으로 보아) 철두철미한 封建主義反動派이며 西太后的 反革命路線의 가장 충실·馴服의 走狗이다. 세째, 武訓 찬양론자들이 말하는 “苦行”은 그가 大地主·債主가 되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으며 封建階級에 봉사키 위한 정교하고 악독한 수단이었다고 하였다.”<sup>99)</sup>

또한 錢은 武訓과 그의 행적평가지 많은 사람이 제기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動機와 效果問題: 여러사람들이 武訓의 興學은 결과적으로 封建支配階級에 봉사했으나 그 동기는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動機와 效果의 統一論者인 우리 辨證法的 唯物論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평가는 잘못이다. 武訓은 興學을 위한 진실한 노력보다는 大地主·債主가 되는 것이 더 우선되는 목표였다. ② 道德의 標準問題: 武訓찬미자들이 武訓의 “苦行”, “堅忍不拔”, “困難克服” 精神을 찬양하면서 그러한 정신으로 人民에 봉사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은가? 라고 하는데, 이는 도덕표준의 문제이다. 武訓의 興學은 地主, 豪紳, 地主·商人의 子弟에게 叩頭下跪하여 이론 노예사상의 결과이다. 그러한 奴隸精神을 新中國에 再現시켜서는 안된다. 이미 일어나 위대한 조국의 주인이 된 中國人民은 누구에 대해서도 몸을 굽히는 비굴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은 중국인민 固有的 勤勞·勇敢·人民에 대한 忠誠, 誠實, 團結, 友愛 등이며 또한 祖國, 人民, 勞動, 科學, 公共財物 등을 사랑하는 國民公德이다. ③ 이른바 “一概抹殺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武訓精神을 찬양·숭배하는 것은 歷史唯物觀點에서 볼 때 잘못이나 武訓의 一切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역사인물을 분석·평가하는 경우 史的唯物論의 입장에 서서 그 인물과 당시 사회계급과의 관계 및 社會生產力에 미친 영향 등에서 분석해야 되는데,

99) 同上論文, p. 7.

그런 입장에서 볼 때 武訓은 철두철미 舊經濟, 舊政治, 舊文化를 옹호한 미미하고 비천한 舊人物에 지나지 않고 중국역사상 단지 소극적, 反動的 작용을 한 人物에 지나지 않는다.<sup>100)</sup>

끝으로 錢俊瑞는 그의 논문을 武訓과 관련하여 國民黨下에서 職業教育, 平民教育, 鄉村教育 등 여러가지 형태의 教育救國을 제창한 교육자들을 改良主義者로 규정하고 그들의 “超政治”·“超階級”의 입장이 勞動人民의 인식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전투의지를 약화시켜 실상은 反動派의 통치를 돕는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즉 武訓批判의 진지한 학습을 통해서 新中國의 廣대한 教師들은 個人主義와 기타 改良主義의 잘못된 사상을 청산하고 “人民服務的革命思想”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다.<sup>101)</sup>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陶行知는 “武訓精神”찬미자 중 第一人者였다. 따라서 錢은 또한 陶行知가 왜 武訓을 칭송했는가 하는 문제를 자기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陶가 초기엔 改良主義者였다가 9·18 후 일제의 침략과 국민당의 탄압하에서 “革命的民主派”로 改變한 것은 사실이나, 陶가 武訓을 칭찬한 이유는 陶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小資產階級的 改良主義 範疇에 속하고 共產主義思想에 속하지 않는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02)</sup>

요컨대, 中共은 武訓批判運動을 통해서 知識人들(文化界와 教育界) 간에 그들이 국민당 정부시부터 가져왔다고 생각되는 “改良主義的” 사상을 一掃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思想으로 代替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武訓批判에 있어서 陶行知가 주요한 찬미자로 인정되는 만치 陶도 비판을 받아야만 改良主義思想批判이 마무리될 것이었다. 따라서, 錢의 이 논문이 발표된 다음 달인 1951년 10월부터 중공교육계에서는 陶行知思想批判

100) 同上, pp. 7~9.

101) 同上, pp. 10~11.

102) 同上, pp. 11~13.

의 토론이 전개되는 것이다.

## 2. 陶思想批判討論의 성격과 내용

위에서 제시한 바 처럼 陶行知思想에 대한 批判討論은 「武訓傳」批判運動의 연장으로써 1951년 6월 중공정부 기관지 「人民日報」社說을 통한 중공과 중공중앙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다.<sup>103)</sup> 이 陶思想批判討論은 주로 「人民教育」, 「新教育」 등 교육계 잡지를 이용한 紙上討論形式을 취하였는데 1951년 4월부터 1955년 말까지 2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약 4년여에 걸친 토론에서 陶思想 가운데 취급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해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陶思想批判의 경우는 武訓批判時와 다른 면이 있다. 그것은 兩者批判에 있어서 비판의 잣대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陶가 그의 생전에 毛澤東, 周恩來를 포함한 주요 중공지도자들에 의하여 “人民的教師”로 워낙 존중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중공정부초기에 사상개조운동의 목적에 기여하는 한에서 조심스럽게 진행시킨 감이 있다. 즉 武訓批判時처럼 人物과 사상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陶에 대한 중공당국의 “人民的偉大한 革命的教師”라는 평가는 유지시키면서 陶사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다루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많은 비판논문을 개별적으로 모두 다루기보다 전체논문들이 주요비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비판내용의 시간적 변화추세를 간략히 고찰하려 한다.

### (1) 陶의 “武訓精神”表揚 착오문제

陶行知교육사상비판운동이 「武訓傳」비판운동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陶 사상비판토론에서 그의 武訓精神 칭송과 제창이 錯誤였다는 문제가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陶사상에 대한 본격적 비판토론은 중공 중앙교육부

103) 註 92)과 同一.

의 지시에 따라 1951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4월부터 武訓精神 찬양과 관련하여 陶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上海「文藝報」에 발표되었고, 그것들은 中共의 陶思想批判運動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한 글들은 곧 賈霽의 “敎訓으로 삼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武訓”이라는 글과 揚耳의 “도행지선생이 武訓精神을 表揚한 것은 적극적 작용이 있는가?”라는 글이었다.<sup>104)</sup> 賈霽는 陶가 武訓精神을 表揚한 이유를 武訓이 맨주먹의 환경(無錢, 無靠山, 無學校教育)에서 30여년의 한결같은 노력에서 3개의 學校를 세운 것이 국민당치하에서 陶가 “人民教育家”로서 인민을 위한 이상을 실현하려 했을 때 처한 여러가지 어려운 처지와 類似했던 데서 제출된 것으로 보았다. 故로 그는 陶의 당시 입장과 苦心에 十分 이해가 가며, 또한 陶의 武訓精神表揚이 그의 生時에는 어느정도 적극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中共의 승리후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변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武訓精神은 부적합하며 오히려 해롭다고 하였다. 즉 中共사회에서는 “毛澤東思想을 배움으로써만이 지식분자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工農群衆에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武訓과 같은 無立場·無原則的 盲目主義와 形式主義의 사상내용과 作風은 절대로 群衆에 봉사할 수 없고” 오히려 인민의 “群衆文化와 政治上 戰鬥力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5)</sup>

그러나 揚耳는 陶行知의 ‘人民的 敎師’와 反帝·反封建鬪士로서의 위대성은 인정하나 陶의 武訓精神表揚은 그의 生存당시나 解放 후를 막론하고 착오였으며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楊은 賈霽가 말한대로 “陶行知先生 당시에는 그의 武訓精神表揚이 잘못이 아니었다면,” 왜 魯邊은 동일한 시대에 오히려 武訓을 선양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였는가를 물으면서, 陶의 武訓精神表揚은 “群衆文化와 政治上 戰鬥力을 저하시킨 해로운 것이었다”고 賈의 주장을 반박했다.<sup>106)</sup>

104) 同上.

105) 同上, 賈霽논문, pp. 64~65.

106) 同上, 揚耳論文, pp. 72~74.

앞의 두사람보다도 陶의 사상을 더욱 폭넓게 언급하면서 陶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의 武訓精神찬양을 논한 것이 같은 해 7월 「新教育」誌에 실린 葛天民의 “武訓精神과 陶行知先生”이라는 논문이다.<sup>107)</sup> 이 논문에서 葛은 우선 여러 諸者들이 陶의 教育方法을 武訓의 것과 同一視하거나 陶의 生涯全體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武訓精神은 실질상으로 ‘奴才精神’(비굴한 저지 정신)이었고 그의 사업은 封建統治階級에 복무하는 奴隸教育이었으나 陶의 정신과 사업은 武訓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陶의 사상이 비록 9·18이전에는 교육만능, 교육구국, 和平한 방법으로서의 사회개조 등을 믿는 改良主義思想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긴 했으나 그의 사상은 一貫되게 反封建·反帝的이었으며 人民的 立場에서 人民的 利益을 대표하고 畢生 人民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陶가 武訓精神을 제창한 것은 당연히 하나의 잘못이나 그것은 陶가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 학교를 했고 고통을 무릅쓰는 武訓精神이라는데 미혹되었던 연유”로서 해석한 일이며, 그러나 그것이 陶의 빛나는 업적의 전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나아가서 葛은 陶의 사상이 改良主義思想에서 不斷히 발전하여 政治上 中共의 親密한 戰友가 되었으며 그의 교육사상과 경험이 “解放區에서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빛났고” 따라서 「人民教育」 第四期에서도 그의 사상과 경험을 “중국인민교육의 귀중한 유산의 하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여 陶를 옹호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논의에 대해 중앙교육부의 결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앞에서 든 教育部副部長 錢俊瑞의 논문인 “우리는 武訓문제토론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의 終章部分이다. 錢은 거기서 武訓과 陶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음의 두가지 이유를 들어 말하고 있다. 첫째, 武訓이 反動派요, 반동파의 馴服한 도구였던데 反해, 陶는 그의 생애 후기에 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혁명파에 屬하고 있다. 둘째, 武訓이 경영한 “義學”

107) 葛天民, “武訓精神與陶行知先生,” 「新教育」 3卷 5期(1951. 7. 10), pp. 10~12.

의 목적과 내용은 모든 봉건제급을 위한 완전히 反動的 敎育이었던 것에 對해, 陶의 학교는 民主·科學의 敎育이었고, 비록 그의 敎育사상 중 중대한 결점과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敎育사업, 특히 후기의 것이 反帝, 反封建, 反國民黨敎育政策의 성격울 띠어 反動派統治階級에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온갖 박해를 받았다. 따라서 陶의 敎育사업은 北洋軍閥과 蔣介石 등에 의해 表揚된 武訓과는 전연 相反된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革命民主派이며 民主敎育家인 陶가 왜 武訓을 推崇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陶의 敎育사상이 기본적으로 小資產階級的 改良主義思想에 속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그리고 毛澤東의 敎育사상과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08)</sup> 다시 말해서 錢은 武訓批判과 연결하여 陶에 대한 全面的 부정을 경계하고 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별하여 평가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陶가 후기 ‘급진적 민주주의자’로 전변하여 중공과 접근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그러나 그의 사상이 小資產階級的 改良主義 범주에 속하고 공산주의사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운 중공사회에서의 陶의 사상은 마땅히 척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 (2) 資產階級論 對 小資產階級論

陶思想의 階級性에 대하여는 錢俊瑞가 이미 小資產階級的 改良主義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뒤에 陶를 보다 신랄히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陶의 사상은 小資產階級이 아닌 資產階級的 改良主義에 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즉 潘開沛는 1951년 12월에 발표된 “陶行知敎育思想中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토론”이라는 논문 첫장에서 陶行知的 敎育사상이 小資產階級性的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錢俊瑞에 동조하여 陶의 사상을 小資產階級的 改良主義思想이라고 한 戴百縉와 董純才의 글을 비판하였다.<sup>109)</sup> 潘은 1920년대 중국사

108) 錢俊瑞, 上揭論文, pp. 11~13.

109) 潘開沛, “陶行知敎育思想中幾個問題的商榷,” 「人民敎育」4卷2期(1951. 12), pp. 15~18.

회에서 추진된 平民教育, 職業教育, 鄉村教育 등은 일단의 自由資產階級的 지식분자들이 국민당과 함께 전개한 것으로 陶의 당시 教育活動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증거로 中華教育改進社가 회원회비의 江蘇當局的 창조를 받은 것과 上海의 自然科學園과 山海工學團들이 民族資本家の 원조를 받은 것, 그리고 1930년대 말 育才學校가 國民黨賑濟委員會의 보조와 美國援華會의 기부금을 받은 것을 들었다.<sup>110)</sup> 潘은 계속해서 陶의 教育思想이 기본적으로 始終如一하게 존·듀이학설과 階級調和論에 입각한 資產階級的의 改良主義觀點에 屬한 것으로 그러한 계급적 제한 때문에 主觀的 唯心論에 빠지고 階級間 착취관계를 무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陶의 “大衆教育”구호에 미혹되어 그를 “新民主主義”나 無產階級思想으로 생각하고 또는 한발자국 물러나 小資產階級思想으로 간주하는 데, 실상 陶의 기본사상은 資本家에게 봉사하는 資產階級的의 思想이지 小資產階級的의 사상이 아니라 하였다. 그것은 毛澤東이 “糾正黨內錯誤思想”이란 글에서 지적한 바 小資產階級이 보통 주장하는 정치상의 극단적 民主, 극단적 平等權利, 그리고 경제상 요구하는 극단적 平均主義가 陶의 주장에서는 모두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비록 陶先生의 口號와 名稱은 변화했을지라도 그 中心思想, 곧 舊社會制度 아래서 階級調和에 입각하여 資本主義生産의 발전을 요구하는 資產階級的의 改良主義思想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sup>111)</sup>

비록 潘의 위와같은 주장에 직접적 반박은 안했을지라도 그 후 여러사람들은 여전히 陶의 思想을 小資產階級的의 혹은 進步的 資產階級的의 改良主義思想으로 논급하였다. 張凌光, 張宗麟, 方與嚴, 王泰然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이다.<sup>112)</sup> 그러나 1953년 5월에 가서 潘의 주장을 직접으로 반

110) 同上, p. 15.

111) 同上, p. 18.

112) 張凌光, “評「生活即教育, 社會即學校」,” 「人民教育」(1952年1月號) pp. 13~16; 張宗麟, “對陶行知先生的認識和我的初步檢討,” 同上書, (1953年3月號) pp. 6~9; 方與嚴, “再認識陶行知先生教育學說並批判自己,” 同上書, (1952년

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張健의 “陶行知教育思想의 階級性을 略談함”이라는 논문이 그것이다.<sup>113)</sup> 張은 潘이 陶의 사상을 資產階級의 思想으로 인식하는 5가지의 논점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陶의 사상은 小資產階級의 思想範疇에 속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張의 5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潘氏는 1920年代 鄉村教育에 종사했던 인사들을 모두 自由資產階級의 지식분자로 간주했는데, 전부 그렇지는 않다. 鄉村教育者 중에도 “地主階級에 봉사한 鄉村建設派, 買辦階級에 봉사한 晏陽初流, 自由資產階級에 봉사한 中華職業教育社派, 그리고 陶行知와 같은 小資產階級의 鄉村教育 등 여러 갈래가 있었다. 그것들을 모두 資產階級의 改良主義로一括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 실제에 맞지 않는다. 둘째, 潘은 陶의 교육사업의 주된 경제적 원천을 “자본가, 반동정부, 국민당안의 반대파”라고 하였는데, 陶가 경제적으로 의존한 곳 중 가장 주요한 것이 民族資產家들이었으며, 1941년 「皖南 사건」이후 민족자산가들이 감히 원조를 하지 못했을 때, 陶의 사업(예컨대 育才學校)을 도운 것은 주로 解放區의 人民들이었다. 陶先生의 35年間 교육활동 중 자산계급의 원조를 받은 외에 또한 중공 지하당원과 그 주위에 貧苦知識階級分子의 力量에 의지하기도 하였다. 다만 그는 혁명을 통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勞苦大衆教育”을 이용하여 사회를 개조하고 계급을 소멸하려는 小資產階級의 환상을 실현하려 했다. 이는 小資產階級의 兩重性을 반영하는 것이다.

세째, 潘은 陶의 哲學的 觀點이 二元論의이란 점을 들었는데, 資產階級뿐만 아니라 小資產階級의 철학관점도 마찬가지로 二元論인 것이다. 陶의 사상은 확실히 機械唯物論의 요소와 主觀唯心論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들 行動을 지식의 근원으로 파악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혁명이론 없이는 혁명행동도 없는 것”과 같이 지식의 行動에 대한 지도의 뜻을 보지

7 월호), pp. 25~29; 王泰然, “關於陶行知先生以教育改良社會的思想,” 同上書, (1952년 3월호), pp. 10~12.

113) 張健, “略談陶行知教育思想의階級性,” 同上書, (1953년 5월호), pp. 31~32.

못했는데, 이는 기계유물론적 착오의 視角이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지 않고 “在勞力上勞心”의 교육으로 계급의 소멸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이는 主觀唯心論의 觀點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陶의 小資產階級的의 兩重性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네째, 潘은 陶의 民主思想이 東西洋 이곳 저곳의 잡동산이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사상을 자산계급성에 속한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陶는 또한 毛澤東의 “新民主主義論”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노선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의 思想上 한계의 불명확성이 바로 小資產階級性的의 表示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陶에게는 정치상 극단적 민주화사상과 경제상 절대평균사상이 있다. 그러한 사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그의 “工學團”개념이다. 이 工學團은 政府나 어떤 계급정당의 領導없이 농민과 지식인의 合作으로 능히 救國, 救民하고 계급을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전형적 小資產階級的의 유토피아적 환상과 無政府主義思想인 것이다.<sup>114)</sup>

이상과 같이 陶思想을 일종의 貧苦의 小資產階級分子的의 사상으로 설명하는 한편, 張은 당시 陶思想批判의 주요 목적은 工人階級的의 毛澤東教育思想과 小資產階級的의 教育思想과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국 교육사업에 대한 工人階級的의 領導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陶의 교육사상에 대해서 그의 生存時에는 어느정도 진보성을 인정하나 새로운 중공사회에서는 毛澤東의 교육사상으로 代置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3) 陶의 諸學說 비판

앞에서 본 논쟁들이 陶의 교육사상의 전체적 성격을 규정하려 한 것이었다면, 陶思想批判은 또한 그의 교육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諸理論과 方法에 대한 구체적 비판도 병행해서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戴白韜, 方

114) 同上, p. 32.

與嚴, 董純才, 張宗麟, 劉季平 등 陶의 生時 弟子들의 自我批判과 陶의 知己였던 사람들의 비판형식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그와 같이 陶와 가까웠던 사람들로 하여금 陶의 사상을 비판케 하는 방법은 陶의 교육사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萬人에게 확인시키는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위에서 든 陶의 弟子들의 陶의 사상비판은 우선 자기들의 과거 陶의 사상에 대한 '그릇된 관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한 잘못된 관점은 대부분 그들이 陶의 思想을 毛澤東의 新民主主義의 教育思想과 同一한 것이나 一脈相通하는 것으로 혼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戴白韜, 方與嚴, 張宗麟 등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엄중한 착오'로 고백하고 있는 바다. 그리고 이들은 陶의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교육사상과 對比하여 그 差異를 설명하면서 陶의 교육사상의 각 부분을 모두 비판하였다.

그러한 陶의 교육사상에 대한 구체적 비판토론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중공에서 미국의 資產階級的의 교육사상으로 비판되고 있었던 존·듀이의 교육철학과 陶의 교육사상 및 이론과의 관계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陶의 사상을 듀이의 것과 同一視하는 부류와 그것을 부정하는 부류로 의견이 나뉘었다. 戴白韜, 董純才, 劉季平, 林木, 陳之平 등은 前者에 속하고 張凌光, 方與嚴 등은 後者에 속했다.

우선 陶의 오랜 弟子이며 그의 傳記도 펴냈으며 1940년대 말 中共黨員도 된 戴白韜는 한 自我批判의인 글에서 陶의 生活教育思想의 근간적 원리인 “生活即教育, 社會即學校”라는 命題와 曉莊學校에서의 實習爲主의 學習을 일종의 經驗主義의 교육사상이며 듀이思想과는 다르게 보이나 實際에 있어서는 “듀이反動教育思想의 中國의 再版”이라고 혹평했다.<sup>115)</sup>

上海 自然科學園時 陶의 제자였던 董純才도 陶의 教育學說을 “完全히

115) 戴白韜, “對陶行知教育思想認識的初步檢討,” 同上書, 卷6期(1951.10), pp. 25~28, 특히 p. 27.

美國 듀이의 實用主義教育思想의 中國의 翻版이라 규정하면서 “生活即教育”, “社會即學校”, “教學做合一” 등 陶의 생활교육이론은 곧 陶의 先生인 듀이의 “教育即生活”, “學校即社會”, “在做上學” 등 실용주의 교육이론을 그럴듯하게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였다.<sup>116)</sup> 그는 또한 陶의 實習을 重視하는 教學法을 ① “實際生活”을 中心으로 하고 教室教育을 부정하며, ② “共教, 共學, 共做”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教師의 作用을 과소 평가하며, ③ 學生의 個人生活經驗을 第一位에 두고 理論知識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과 同一한 系統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 劉季平, 林木, 陳之平 등도 직·간접의 차이는 있으나, 陶의 교육사상이 기본적으로 實用主義사상에 속하며 듀이 類의 교육사상이라는 데에는 戴나 董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sup>117)</sup>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張凌光 등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張은 특히 董純才가 陶와 듀이의 교육사상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말을 비판하는 글에서 陶의 사상이 비록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思想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나 進步의인 면이 적지 않으며 “미국자산계급 듀이의 사상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張도 陶가 그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듀이의 사상적 영향아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曉莊學校時 이후, 특히 抗日戰前後부터의 陶의 사상은 듀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다는 것이다. 抗戰이후 陶가 교육을 “중국민족과 대중의 해방을 위한 무기”로 본 것이나 中共에의 接近이 그 증거라고 했다. 張의 持論은 듀이哲學이 美資產階級에 봉사하는 資產階級思想이었던 반면 陶의 것은 實驗主義的 束縛을 완전히 탈피는 못했어도 封建的 舊教育과 중국현실에 맞지 않는 歐

116) 董純才, “我對陶行知先生及生活教育的認識,” 同上書, pp. 29~32, 특히 pp. 30, 31.

117) 劉季平, “略論陶行知先生的哲學觀點,” 同上書, 4卷 1期(1951.11). pp. 24~29; 林木, “評「古廟敲鐘錄」,” 同上書, (1952년 2월호), pp. 23~26; 陳之平, “對陶行知先生教育思想的探討,” 同上書, 1953년 8월호, pp. 54~55.

美式 教育도 비판한 “小資產階級上層進步分子”의 교육철학이었다는 것이다.<sup>118)</sup>

陶를 資生階級改良主義者로 간주했던 潘開沛도 陶가 처음에는 鄧이式的 美國實用主義教育을 중국에 적용하려다 不通하자 不得不 “生活教育”思想으로 轉向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鄧이學說의 翻版이 아니라 半封建·半殖民地의 중국적 사회아래서의 새로운 發展이라고 했다.<sup>119)</sup>

陶의 가장 充實한 弟子중의 하나이며 특히 生活教育理論 宣揚에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方與嚴이다. 그는 陶의 學說과 관련한 自己批判의 글에서 陶의 學說을 進步的인 면과 落後的인 面의 양면이 있음을 논하고 과거 자기의 잘못은 진보적인 면만 보고 낙후된 면은 忽視한 것이라 했다. 陶사상중 그러한 낙후된 면의 하나가 鄧이의 經驗主義哲學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나, 曉蔣創辦이래 中國革命的 需要와 中共의 統一戰線의 영향아래 그의 교육학설도 점차 발전되어 갔다고 함으로써 애매하나 陶의 學說이 완전히 鄧이哲學과 同類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sup>120)</sup>

좀 시기적으로 뒤이나(1957년) 陶의 思想을 鄧이哲學과 同一視하는 것을 가장 완강히 반대한 것은 陶의 가까운 知인이었던 鄧初民이었다. 그는 生前에 陶가 始終一貫 中國人民의 一切問題에 충실하고 또한 중공과 가까웠으며 그의 교육사업들이 많은 공산당원을 배출하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가졌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陶의 교육사상을 “자산계급을 돕고 노동인민의 혁명적식을 마비시키는” 鄧이의 사상과 혼동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논리적 근거로서 鄧은 陶의 “生活教育은 무엇인가?”와 “生活教育의 特質”의 두 글의 내용을 들었다. 간략히 말해서 鄧이가 말하는 “學校即社會”나 “教育即生活”은 마치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 같이 학생들을 학교안에 가두는 “鳥籠教育”이었던 반면 陶의 教育思想은 그러한

118) 張浚光, 前揭論文, pp. 15, 16.

119) 潘開沛, 前揭論文, p. 18.

120) 方與嚴, 前揭論文, pp. 27~29.

새장을 부수고 세계로 통하게 하는 것인 만치 본질상 완전히 틀리다는 것이다. 또한 生活教育의 特質은 “生活的, 行動的, 大衆的, 前進的, 世界的, 歷史聯系的”이며 陶는 “피압박 인민대중의 권리의 보호자로 自任”하고 교육을 인민대중의 해방과 중화민족해방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資產階級에 봉사하는 듀이의 교육사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sup>121)</sup>

陶의 교육사상과 듀이의 思想과의 同一性 如否를 論難하는 과정에서도 간간히 보였거니와 陶의 교육이론과 방법의 모든 부분이 일단 批判의 대상이 되었다. 陶의 生活教育思想의 三大原理인 “生活即教育”과 “社會即學校”, “教學做合一”은 많은 論者들에 의해서 일종의 “狹隘的 經驗主義”(또는 狹隘的 實用主義)교육이론으로 매도되었다. 그러한 교육이론은 또한 교실교육을 부정하며 교사들의 일정한 教育作用을 忽視하고 理論을 경시하여 단편적 개인경험위주의 지식외에 계통적이고 과학적 지식을 함양할 수 없는 잘못된 사상으로 지적되었다.

陶의 “做”의 中心개념에 부수된 개념인 “在勞力上勞心”의 觀點도 凱旆에 의하여 철저히 비판되었다. 凱旆의 중요한 論點은 陶의 그러한 觀點과 관련된 世上人을 勞心的人, 勞力的人, 勞心兼勞力的人, 在勞心上勞力的人의 4종류로 구분하는 것은 계급을 生産關係에 따라 구분치 않고 現象上으로만 나눈 超階級的인 觀點으로 舊社會의 피착취계급과 착취계급의 兩大階級的 존재를 무시한 것이요, 또한 그러한 4分法은 唯物論的의 一元論에 위배되는 二元論的의 發想으로 勞力的人이 생각하는 바 없이 (無所用心) 일관하여 남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그렇게 만든 것이 社會制度의 탓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을 보지 못한 것이고, 끝으로 그가 “人人在勞力上勞心便可無廢人, 便可無階級”이라 한 것은 완전히 資產階級的의 改良主義者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이다.<sup>122)</sup> 결국 陶의 이론은 階級鬭爭

121) 鄧初民, “我們必須對陶行知先生給以重新評價—紀念陶行知先生逝世十一周年—,” 「人民教育」(1957년 7월호), pp. 16~18.

과 無產階級革命과 專政을 통해서만 계급을 소멸하고 이를 수 있는 이상적 사회를 教育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教育萬能論的 觀點이며 現狀打破를 주저하는 사상이라는 비난이었다.

曉莊學校의 폐쇄후 陶가 또 다른 農村改革事業으로 기도하였고 “古廟敲鐘錄”에 그 청사진이 밝혀진 “工學團”思想도 비판되었다. 古廟敲鐘錄을 집중 분석한 林木은 그것 속에 나타난 陶의 ‘新村理想’이 地主에게 관대한 階級調和의이며, ‘眞農人’으로서 中農·自耕農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그의 工學團은 學校를 工場化하여 生産力이 낙후한 중국을 자본주의적 문명 속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 해석했다. 또한 林은 陶의 山學團에서의 自衛團조직구상도 “東北으로 가자”, “東北을 되찾자”는 구호로 그 나름의 民族意識을 표시한 것 같으나 실은 土匪를 방어하여 지주의 재산을 지키는 단체밖에 될 수 없으며, 특히 無產階級 대신 小學校敎師가 農民武裝을 명도한다는 잘못된 改良主義思想이라고 왜곡·비판하였다.<sup>123)</sup>

같은 「古廟敲鐘錄」의 분석을 통해 陶의 교육사상을 비판한 王泰然도 工學團에 나타난 陶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독특한 유토피아幻想’이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民族資產階級の 요구, 中農의 요구와 小資產階級知識分子的 “夢想的 領導權”관념, 그리고 공상적 “世界大同”의 4 가지 서로 다른 관념이 그 속에 함께 섞여있는 잡동사니 幻想으로 毛澤東의 교육사상과는 본질상으로는 물론 방법상으로도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혹평하였다.<sup>124)</sup>

마지막으로, 1934년 上海 山海工學團에서 시작된 후 얼마 안되어서 全國 21 個省 4 市로 확대되었고 많은 解放區에서도 채용·실시되었으며 中共政權수립후에도 여러 곳에서 실행된 陶의 “小先生制”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小先生制”를 처음 구체적으로 논한 姜樂仁은 “小先生制”는 일정한 사회환경과 역사적 조건하의 산물로써 舊社會(국민당치하—필자)

122) 凱旆, “「教學做合一」的批判,” 同上書, (1952년 1월호), pp. 17~20, 특히 pp. 19~20.

123) 林木, 前揭論文, p. 23, pp. 25~26.

124) 王泰然, 前揭論文, pp. 10, 12.

에서는 失學兒童과 失學成人의 識字教育和 대중의 문화적 수준을 제고하는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sup>125)</sup> 그러나 중공정권수립 후 이미 사회환경과 역사적 조건이 모두 變改된 상황아래서는 小先生制가 不適合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姜은 두 가지를 들었는데 바 간략히 말하면 그 첫째는 小先生은 목적과 제통과 계획을 가지고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教師職責을 담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실시하는 경우 教學作用의 저하를 가져 온다는 것이요, 둘째는 文盲을 없애는 데 있어서도 ‘新中國’에서는 단순한 識字教育을 넘어선 文化 전체를 학습하는 全面的 教育의 실시가 필요한 때, 小先生制로서는 그러한 요구에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小先生制는 이미 그 역사적 임무를 다했을 뿐, 더 이상 推行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sup>126)</sup>

그러나 위와 같은姜의 비판에 대하여 許行은 反論을 제기했다. 許는姜이 말한 역사적 조건이란 당시 정치적 조건보다는 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이었던 바, 小先生制가 舊社會에서는 여러가지의 제약으로 보편적인 推廣이 못되었었는데, 新社會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실시는 文盲을 없애고 의무교육을 보급함에 있어서 부족한 교원문제를 해결하는데 보조방법으로 有用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毛澤東의 교육문제에 관한 지시 중 “以民教民”, “發動群衆自己教育自己”란 귀결과 1950년 9월 30일 第一次 全國工農教育會議에서 행한 教育部副部長 錢俊瑞의 말을 인용하면서 小先生制야말로 지역에 따라 方法은 달리 한다 하더라도 “以民教民”의 구체적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sup>127)</sup>

125) 姜樂仁, “評「小先生制」,” 同上書, 3卷 4期(1951.8), pp. 34~35.

126) 同上, p. 35.

127) 許行, “對『評「小先生制」』, 一文의商榷,” 同上書, 3卷 6期(1951.10), pp. 43~44.

## V. 맺 음 말

앞에서 본 바, 「人民教育」誌를 중심으로 전개된 陶行知教育思想批判討論은 대체로 1953 년으로 일단락되었다. 1951 년 중반부터 시작된 중공의 思想改造運動의 첫 신호로 전개된 「武訓傳」批判運動의 연속으로 약 2 년여에 걸쳐 행해진 이 陶思想批判討論은 陶思想의 전반적인 문제와 아울러 극히 구체적이고 작은 부분에 이르기 까지 철저히 분석, 비판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공당국의 陶思想批判討論의 진행방법은 武訓에 대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武訓批判運動이 舉黨, 全國의 인 규모로 약 3 개월이라는 비교적 短期間內 철저히 그리고 武訓의 모든 것을 全面否定하는 격렬한 것이었던 데 비해 陶思想批判討論은 長期間 지속적이며 制限의인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물론 陶思想批判도 中共當局의 宗용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中央教育部 책임아래 교육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事實을 歪曲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일정한 한계가 강조되어 있었다.<sup>128)</sup> 뿐만 아니라, 武訓批判運動과는 달리 陶思想批判討論에 대하여 중공당국은 공식적인 종합결론을 내려 마무리짓지를 않았다. 중공당국은 비판 토론자들의 논쟁을 장기간 放置, 持續시킴으로써 陶思想中 錯誤되거나 否定的인 면이 자연히 들어나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다. 게다가 중공당국은 1940 년대 그들이 陶와 그의 교육사상에 대하여 보였던 높은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주지 않도록 배려를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는 第一次 5 年計劃이 끝난 후 中共教育學體系化作業의 일환으로 행해진 解放區教育經驗의 정리와 병행하여 陶와 그의 사상이 다시 적극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과 연결된다.

그러한 적극적 평가의 최초의 글이 1951~53 년에 이루어진 陶行知教育思

128) 隱之平, “對陶行知先生之教育思想檢討,” 「人民教育」, (1953 년 8 월호)에 붙인 편집자의 按註.

想批判討論에 대한 하나의 결론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즉 陶批判을 주도해온 「人民教育」의 편집자는 1957년 7월호에 陶行知逝去11週年을 기념하는 두 편의 글을 실으면서 그 동안의 陶思想批判討論의 글들이 認識이 일치되지 않아 결론을 못 내렸는데, 陶行知는 기본적으로 크게 기념할 만한 人民教育家이며 寶貴한 教育遺產을 남긴 만큼 그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鄧初民, 張宗麟 두 사람의 글을 발표한다고 하여 이들 양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陶思想批判討論의 결론을 내리려 함을 시사하였다.<sup>129)</sup> 鄧·張 兩人的 글은 모두 陶行知를 옹호하는 내용인 점에 공통적이었으며 구체적인 면에서 張의 글이 결론적인 성격에 부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張이 “陶行知先生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그 동안의 陶批判討論을 정리, 결론으로 제시한 要點은 다음과 같다.<sup>130)</sup>

① 陶는 비록 無產階級的 革命戰士는 아니었으며 그의 사상은 改良主義에 屬하나 毛澤東이 말한 대로 ‘偉大한 人民教育家’이고 애국자이며 資產階級民主戰士이고 無產階級革命의 친밀한 戰友였다.

② 陶의 사상은 초기엔 資產階級的 사상으로 充滿했으나 점차 轉變하였으니, 특히 1933년 이후에는 中공을 신뢰하는 마르크스주의로 向하고 있었다.

③ 陶의 思想은 鄧의 哲學의 翻版이 아닌 동시에 더구나 武訓과는 質的으로 다르다.

④ 陶의 “小先生制”, “工學團” 및 기타 교육관념과 방법은 全部 否定해서 안되며, 그 속에는 부분적으로 채용·발전시킬 때 新中國에 맞는 有效하고 節省의 方法이 적지않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앞에서의 모든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中공의 1951~53년에 걸친 陶行知教育思想批判運動은 다음과 같은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129) 두 글은 鄧初民, 前揭論文, “我們必須對陶行知先生給以重新評價,”; 張宗麟, “關於陶行知先生,” 同書, pp. 19~20; 鄧初民的 論文앞의 “編者按,” 및 張의 論文의 序言부분 참조.

130) 張宗麟, 同上.

있겠다.

첫째, 陶思想批判은 중공정권수립후 얼마안된 1950년 중반부터 시작된 土地革命, 反革命鎮壓, 抗美援朝 등 정권기반 공고화를 위한 정치·사회적 整地作業으로서의 諸運動과 병행하여 행해진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정신적 준비로서의 思想改造運動의 一部였다.

둘째, 사상개조운동은 1950년 末 毛澤東의 제창에 의해 始動되었고 1951년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주된 대상은 국민정부 치하에 있었던 高級知識分子였으며, 목적은 엘리트교육 爲主의 국민정부의 교육정책의 사회주의적 대중교육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과 지식인의 이른바 “小資產階級” 정신의 청산이었다.

셋째, 사상개조운동의 始發은 국민정부와 진보적 교육자, 그리고 중공 당원까지도 칭송한 바 있는 清末 行乞興學의 인물 武訓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었다. 武訓批判을 통하여 封建支配階級과의 타협, 革命에의 무관심, “奴才정신” 등이 痛斥되었다. 陶行知思想批判은 이 武訓批判의 연속인 바, 그의 사상중 선별적으로 “小資產階級的 改良主義思想”의 속성인 “超政治”, “教育萬能”사상, “唯心主觀主義”관념, 實用主義사상 등이 비판되는 반면 陶의 “愛國(反帝)的, 民主(反國民黨)的, 進步(反封建)的, 大衆(反支配階級)的,” 그리고 무엇보다도 親共的인 면은 찬양되었다.

요컨대, 중공당국은 그들이 “人民의 教師”로서 추앙을 公言해온 陶行知的 사상을 「武訓傳」批判에 이어 비판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지식계급의 小資產階級的 改良主義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超階級”, “超政治” 및 엘리트주의 정신을 청산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陶思想과 毛澤東의 新民主主義 教育思想이 같지 않음을 강조하여 일체의 국민정부시대의 교육사상을 불식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후에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陶의 명예회복을 허용함으로써 중공 입장의 一貫性을 과시하고 그의 교육이념중 有效한 부분을 활용하는 二重의 효과를 노린 정책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